철마의 꿈

평 양 출 판 사
주체108(2019)년

차 례

위인과 작가
농민작가 천세봉 ····· (1)
위인일화
민족의 징표 ····· (8)
시
붓을 들었습니다 ····· (12)
내 나라는 얼마나 넓고넓은가 ····· (15)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다 ····· (18)
금강산 폭포수 그앞에서 ····· (21)
무지개 통일다리 ····· (24)
화판우에 새겨진 인생 ····· (26)
단편소설
철마의 꿈 ····· (82)
수필
통일된 나라를 보았습니까? ····· (145)
하얀 설기떡 ····· (154)
야담
김천일의 안해 ····· (159)

작가소개
17세기의 애국시인 정두경 ····· (168)
우화
쪽배와 수레 ····· (171)
자료
작가 현진건과 그의 소설문학 ····· (176)
소설제목을 《등에》라고 단 유래 ··· (186)
작가일화
무딜수 없는 정의의 필봉 ····· (188)
그 형에 그 동생 ····· (191)

상식
우리 나라의 별칭이였던
《진단》의 유래 ····· (80)
필적과 성격 ····· (194)
세계작가일화
《묘지에 무슨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 (153)
성구속담
말과 실천 ····· (23)
유모아
고을원의 판결 ····· (156)
상관의 비위를 맞추려고 ····· (182)

【위인과 작가】

농민작가 천세봉

오늘 우리 인민들치고 작가 천세봉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가리켜 농민작가라고 정을 담아 부른다.

장막희곡 《고향의 인상》, 단편소설들인 《령로》, 《새로운 맥박》, 《땅의 서곡》, 《5월》, 《호랑령감》,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 장편소설들인 《석개울의 새봄》(1부—3부), 《대하는 흐른다》(1부)…

모두가 농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그의 작품들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농민작가라고 불렀다.

천세봉선생네 가정은 몹시 가난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 돈을 마련하려고 먼 지방에 가서 지주집 머슴을 살았다.

일년 내내 허리 한번 펼새없이 농사를 짓고도 지주에게 각종 명목으로 몽땅 떼우고나면 당장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서 학교란 꿈도 꿀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을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그의 아버지가 집에 왔다. 가정의 생존을 위해 어린 천세봉마저 부자집 머슴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그 부자집에 대한 말을 듣던 그는 입을 딱 벌렸다. 그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바로 그 부자집아이가 자기를 멸시하던 동갑나이애였던것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얼리고 때리고 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끝내 바오래기로 그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격한 마음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굳어지고말았다. 자기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볼을 적시며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던것이다.

아! 아버지—

…

그의 운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달라지게 되였다.

《8.15해방! 그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생활중에서 가장 크고 감격적인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의 력사, 우리 인민의 력사, 개별적인 인간들의 운명의 력사까지도 새로 시작된것이였고 최하층에서 헤매던 나자신의 운명도 이때로부터 새로 시작된것이였습니다.》

그의 장편수기 《작가수업 40년》의 한토막이다.

해방은 그에게 그토록 소원했던 배움의 꿈을 현실로 되게 해주었고 문학창작이라는 거창한 나래를 달아주었다. 눈앞의 현실이 그의 문학작품에 그대로 옮겨졌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을 창작하면서 준엄한 시련을 이겨냈다.

전후 농업협동화운동이 시작되였을 때 천세봉선생은 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원이였다. 그의 고향인 고원군 금수리(오늘의 덕지리)의 집에서는 준비위원회성원들이 모여 조합을 무을 토의를 하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다. 그때 그는 자기들의 생활을 반영한 글을 쓸 구상을 하게 되였다.

창혁이, 룡이, 마령감, 리인수, 엄대근, 박병천 등이 모두 그의 생활속에 함께 있었다.

《…내가 이 작품을 쓸수 있은것은 내자신이 작가이기 전에 농민이였기때문입니다.》

그는 조합을 뭇는 그 바쁜 속에서도 창작을 했다. 그는 소설을 서서 썼다. 처음엔 무릎을 세우고 베개를 밑에 고이고 썼는데 한창 쓰다나면 베개는 어느새 빠져달아나고 오금을 꺾은 채로 반쯤 일어서서 펜을 달리군 하였다.

《논김을 매도 저렇겐 안 매겠소.》

그가 글을 쓰는것을 본 마을사람들이 혀를 차며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조합원들이 밭을

갈 때 소가 결눈을 팔면 《이놈의 소, 소설을 씌울라!》 하면서 채찍을 후려치군 했겠는가.

사람들이 그처럼 잊지 못해하는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은 이렇게 태여났다. 하지만 창작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젠가 소설창작에서 맥을 놓고있던 천세봉선생이 병원에 갔다가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천세봉선생의 수척해진 얼굴을 지켜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몸이 좀 어떤가고, 왜 그렇게 수척해졌는가고, 힘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이제 활개를 펴고 해보자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천세봉선생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되던 위대한 사변들을 품위있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인 《혁명의 려명》, 《은하수》, 《조선의 봄》과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한 장편소설 《유격구의 기수》, 《사령부로 가는 길》을 창작하였다.

선생은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풍모를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격조높이 칭송하였으며 수령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들의 모습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마음을 깊이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축원》을 창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그는 농민작가로부터 수령형상문학을 창작하는 작가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꽃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렇다, 꽃은 아름답다, 하지만 해빛이 없이야 어찌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의 뜻깊은 개회사에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잊지 못할 자욱을 남긴 귀중한 혁명전우들의 이름과 나란히 천세봉선생의 이름도 불러주시였다.

어제날의 소작농의 자식에 불과했던 그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은정을 떠나 어떻게 인민의 사랑받는 《석개울의 새봄》과 같은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할수 있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을 떠나 어떻게 인민의 사랑받는 농민작가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생할수 있으랴.

태양의 빛은 영원하다. 그 빛발을 받으며 자라는 꽃들의 아름다움 또한 영원하다.

천세봉선생은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이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작가협회 문학상인 로터스상을 받았다.

【위인일화】

민족의 징표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주체49(1960)년 11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조선력사강의가 한창인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1학년 교실의 분위기는 자못 팽팽하였다.

조선민족의 형성문제에 대하여 강의하던 교원은 선행한 고전리론에 서술되여있는대로 민족을 특징짓는 네가지 공통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언어의 공통성, 지역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 문화생활의 공통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성격의 공통성을 가지고있어야 한민족으로 될수 있습니다.》

교원은 이 고전리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자본주의시대에 형성된 력사적범주로 설명하였던것이다.

하면서 그는 이 공통성들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만 빠져도 한민족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강의가 끝날무렵이였다.

한 학생이 일어나 민족의 형성문제를 고전에 비추어 평가하게 된다면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조선민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고 질문하였다.

해외동포들이 조선민족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였으나 고전의 명제를 가지고 풀자니 똑똑한 해답을 찾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교실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침 휴식종이 울려 교원은 학생들에게 좀더 연구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강의를 마쳤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속에서 벌어진 열기띤 론쟁은 오전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되였다.

학생들의 론쟁을 듣고계시면서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이상 정확한 해명을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민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된다고, 민족은 무엇보다도 피줄과 언어가 같은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

학생들의 눈앞을 가리웠던 고전의 장막을 벗겨버리고 모든것을 환히 밝히는 서광과도 같이 명철한 가르치심이였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한강토안에서 한피줄을 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

리 동포들도 다 같은 조선민족이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이다, 그런것만큼 재일동포들이 지금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그들도 조선민족이다. …

참으로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민족의 징표와 그 형성의 력사적합법칙성에 대한 새롭고도 독창적인 해명이였다.

선행한 고전가들이 한생을 바쳐 이룩한 학설, 100여년간이나 내려오면서 굳어질대로 굳어진 고전의 리론을 순간에 분석총화하시고 민족의 징표를 새롭게, 완벽하게 정립하시여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예지에 대한 매혹과 흠모로 학생들의 심장은 불타올랐다.

【시】

붓을 들었습니다

비전향장기수 박 문 재

나는 시인이 아닙니다
허나 시인이였던 아버지처럼
나도 붓을 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어설프지만
아버지 못다 부른 노래까지 합쳐
부르고싶어

무엇부터 노래해야 합니까 조국은
푸르른 저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애국가의 숭엄한 선률로
내 집 창가에 날리는 람홍색기발로
조국의 노래는 시작되는것입니까

떠오르는 아침해 제일먼저 보여오는
저 려명거리 창가마다에
비껴흐르는 눈부신 해살
《소나무》책가방 달랑이며 학교로 가는
아이들 노래소리 시에 담고싶습니다

대동강기슭의 문수물놀이장
시원한 물바다우에 일어번지는
기쁨의 파도에 이 붓 적시고싶습니다
불밝은 유원지가 떠나갈듯 터져나오는
함박웃음도 노래하고싶습니다

노래할 조국이 없던 망국의 세월
—날더러 진달래꽃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더러
  그 적막하고도 가냘핀 꽃을—
눈물과 고통밖에 담을수 없었던 아버지
하지만 오늘 나는 행복과 희열을 시에
  담노니

수령님 세워주신 인민의 나라
장군님 빛내주신 위대한 나라
보십시오, 이 조국을
우리 원수님 만복이 넘치는 나라
인민의 락원으로 펼쳐주십니다

원수님시대에 일어난 천지개벽
강산은 몰라보게 황홀해졌습니다
가슴에 품고 산 꿈과 리상이
아름다운 화원으로 피여났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나날이 막강해집니다

아버지가 못다 부른 조국의 노래
부르고불러도 끝없는 조국의 찬가
노래하고 또 노래하렵니다
내가 살고 우리 후대들 복락을 누리며 살
아름답고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
나는 조국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렵니다

【시】

내 나라는 얼마나 넓고넓은가

비전향장기수 리 공 순

뜻깊게 밝아온 9월의 이 아침
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바라본다
눈뿌리 아득하게 뻗은 정다운 거리
해가 솟아 물들인 아름다운 지평선
내 나라는 얼마나 넓고넓은것인가

추억도 생생해라
인생의 절반을 삼켜버린
이름만 들어도 소름돋는 옥살이
피얼룩진 감방의 벽에
손톱이 다 모지라져 피가 나도록
내 새기던 그날의 조선지도가

너무도 좁은 철창속
감방벽도 채울수 없었던 조선지도
30여년세월 다 해진 수의로 감싼
여윈 이 가슴속에만 품어야만 했던 조국
내 다시 어디에 새겨 그린다면
그 거룩함 그 위대함 다 담을수 있을는지

이 행성우에 눈부시게 빛을 뿌려
강대함을 떨치는 빛나는 조국
저 하늘에 람홍색기발을 휘날려
긍지와 승리 영광과 존엄으로 자랑찬
70돌기 년륜을 새긴 나의 조국이여

세계를 주도하는 그대의 힘!
누리를 떨치는 그대의 위상!
통이 큰 결단과 배짱, 담력으로
우리 원수님 떨쳐가시는 내 조국
내 나라는 얼마나 넓고넓은 나라인가

아, 드넓은 지구상에 그 이름 빛나는
이처럼 넓고 큰 내 나라
비전향의 나날처럼
자그마한 지도로만 그려낼수 없고
좁은 가슴에만 안을수 없거니

령토가 커서 강국이랴
걸출하신 위인을 높이 모시여
강국의 위용 떨치는 우리 공화국
그 존엄은 하늘에 닿고
그 광채는 세상 한끝까지 눈부시여라

내 조국의 위상 그 거룩함
저 우주에 새긴들 다 새길수 있으랴
령토의 크기로 잴수 없는 나라
아, 내 정녕 알지 못해라
우리 원수님 이끄시는 위대한 조선
그대는 그 얼마나 넓고넓은것인지

【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다

비전향장기수 최 하 종

엊저녁 텔레비죤에서 나는 보았다
태묻은 고향 나서자란 조국을 등지고
이민의 길 방황하는 사람들
정처없는 류랑의 길에서
이방의 문 두드리는 비극의 모습들을

지켜줄수 없고 생을 품어줄수 없었던
조국은 그들에게 조국이 아니였다
목숨을 부지하려 오늘은 이 땅에
래일은 저 땅에 발길 돌리는
불행한 인간들앞에 깊어지는 생각이여

36년 살을 깎는 감옥살이
살아 철창을 나섰어도
숨막히는 세상 역시 산 무덤
《무국적자》, 《이방인》
싸늘한 그 부름 내 사람값에 들었던가

힘이 약해 짓밟히는
그런 땅이 나의 조국이였다면
운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땅이 바로 조국이였다면
나는 지금도 치욕의 그 이름으로 불리우리

조국이 강대해 숨쉬는 화석은
피젖은 철문턱 신념의 강자로 넘을수 있었고
끝끝내 안긴 어머니품에서
공화국공민의 긍지높은 삶 되찾아
이처럼 값높은 생 살고있는것이거니

원수님 높이 모시여 위대한 나라

그 누구도 감히 다칠수 없게
인민을 품어 제일로 여기는 나라
인민중시, 인민제일의 경륜을 펼쳐가는
이 땅이 바로 내 안겨사는 조국

이 조국이 없어보라
행성 어디에나 북적거리는
난민과 이민, 이방인들속에 내가 있으리
심장이 뛴다 하여도
그 심장 뛰는 가슴엔 피눈물만 고이리

생각은 더욱더 깊어지노라
강대한 조국엔 인민의 눈물 없고
행복한 나라엔 방랑의 서글픔 없나니
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나라
한생의 끝까지 그 품에 안겨살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시】

금강산 폭포수 그앞에서

허 만 석(재중동포)

이 땅에 백의민족으로 태여나
살아평생 금강산 아니 보고
내 어이 저세상에 그리 갈소냐?
끝내 오늘 그 소원을 이루었나니
삼록수 약샘물로 목을 추기며
천하절경 금강산에 내 올랐노라!

천길절벽 날아내리는 은사류는
하늘에서 드리운 열두필 비단인가
칠색단 쌍무지개 고이 곱게 걸어놓고
동강난 삼천리금수강산 내 겨레
북남통일 그 념원 그 의지로

이 강산에 한일자 길게 새기네

아츠라니 높이 걸린 비봉폭포
그 한몸 주저없이 내리꼰져
하얗게 산산이 부서져도
기어이 거연히 우뚝 일어나
다시금 똘똘 뭉쳐 하나가 되리라
팔천만 옥구슬로 날아내리고

신기한 여의주 입에 문 구룡폭포
그 전설의 되살아난 아홉룡은
오고야말 통일을 굳게 믿어
오늘도 열두아름 돌절구에
쉬임없이 쿵더쿵 쿵더쿵
통일잔치 떡방아 찧고있어라!

정녕 어찌 백의민족으로 태여나
살아생전 금강산 아니 보고 갈소냐
그보다도 분단된 내 조국 내 겨레

그 통일을 차마 어이 못 보고 갈소냐
금강산 폭포수 돌절구 떡방아여
오늘도 쉼없이 찧고찧고 또 찧는다네
흥겨운 통일잔치 떡방아 찧는다네

—금강산 폭포앞에서—

성구속담

말과 실천

— 백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된다.

백리나 되는 먼길도 처음은 한걸음 내디디는데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그 첫시작은 그리 대단치 않으나 어쨌든 그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 첫시작이 매우 중요함을 비겨 이르는 말.

— 시작이 절반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것이 그 일을 절반한것과 같다는 뜻으로서

① 어떤 일이든지 시작만 하면 성공할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 반쯤은 내다보인다는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② 무슨 일이든 시작이 매우 중요함을 비겨 이르는 말.

—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귀중하다.

말만 많이 하는것보다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시】

무지개 동일다리

최 길 록(재중동포)

번ㅡ쩍!
우르릉 꽝꽝!!ㅡ
번개치고 우뢰가 운다
쏴ㅡ쏴 소낙비가 퍼붓는다

마침내 소나기가 그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섰다

개인 하늘 황홀한 칠색무지개
분계선 하늘우를 가로질러
한끝은 북쪽에
한끝은 남쪽에

그 뿌리 깊숙이 내렸다

북에 사는 내 형제 머리우에도
남에 사는 한겨레 머리우에도
아름답게 비낀 고운 무지개
우리모두 머리들어 쳐다본다

어느덧 저저마다 몸도 마음도
무지개다리우에 올라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목터지게 통일만세 부른다

화판우에 새겨진 인생

정 현 웅(미술가)

- 1911년 3월 5일 서울 종로구에서 출생.
- 1935년 조선일보사 기자로 활동.
- 1946년 서울신문사 출판부장으로 사업.
- 1950년 남조선미술가동맹 서기장으로 사업.
- 1951년 물질문화보존위원회 제작부장으로 사업.
- 1957년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출판화분과 위원장으로 사업.
- 1976년 7월 30일 사망

그림을 그리겠다고 나선지도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진정한 미술가로서의 나의 인생은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되였다.

1950년도에 오매에도 그립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여 공화국북반부의 미술가들이 얼마나 큰 포부와 희망, 열정을 안고 민족미술수립에 정진하고있는가를 보았으며 나도 앞으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미술의 길에 전력을 다할수 있겠다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였다.

—정현웅의 수기중에서—

화판에 비낀 그늘

일제의 조선침략으로 식민지노예의 운명이 짙게 드리웠던 1911년 3월 정현웅은 서울시 종로구의 소시민가정에서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조선봉건왕조 말기 봉건정부의 궁성안에서 잡부로 있던 그의 아버지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후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작은 가구상점을 차려놓았다.

하지만 말이 상점이지 그곳에서 얻는 수입으

로는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날이 갈수록 생의 희열은 점점 사라지기만 하였다.

그러나 가난속에서도 웃음은 어린 자식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이였다.

더우기 둘째아들 정현웅은 어릴적부터 남달리 주위환경에 민감하였다.

아버지는 장차 아들의 미래에 한가닥의 기대를 걸고 그에게 우리 민족의 력사에 흔적을 남긴 수많은 명인들과 재사들에 대한 가지가지의 일화들을 재미나게 말해주군 하였다.

그때마다 정현웅은 언제나 초롱초롱한 두눈을 깜박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새겨듣군 하였다.

그 나날에 그는 조선봉건왕조의 명성황후가 궁궐안에서 어떻게 왜놈들의 칼에 맞아 무참히 학살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제가 얼마나 악착한 놈들인가를 어렴풋이 인식하게 되였다.

정현웅은 5살때 벌써 손에 나무꼬챙이나 숯

같은것을 들고 마당이나 담장에 그림그리는것을 즐겨했다. 종일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뜨락을 맴돌며 그려놓은 그림은 물고기와 새, 꽃들이였는데 그의 그림재간은 동네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낼만큼 생동하였다.

《허, 그녀석 장차 솔거를 대신할 재목이 틀림없소그려!》

부모들도 자식의 남다른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제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쓰고 태여난 인생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집천정이 꺼져내리도록 쉴새없이 한숨만 내쉬던 부모들은 자식들중에 둘째만이라도 크게 내세울 결심을 하였다. 하여 아버지는 집집을 돌아다니며 가구도 수리해주고 주문받는 일을 하였다. 어머니도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자식의 학비를 마련하였다.

온 가족의 손길에 떠받들려 정현웅은 1920년

에 서울청운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29년에는 제2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되였다.

이때부터 그의 예술적재능은 서서히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정현웅은 학교때 유화 《옛성》(1927년)을 그렸는데 그 작품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교원들은 정현웅의 재능에 감탄하며 장차 그가 훌륭한 명화가로 자랄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나래는 있어도 날아갈 푸른 창공이 없고 꿈은 있어도 그것을 피울수 없는것이 식민지노예의 설음이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일제의 강도적략탈과 민족말살책동은 배움에 대한 정현웅의 리상과 포부를 철쇄로 휘감아놓았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정현웅은 자기의 꿈을 이룰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심정을 알고 학교의 량심적인 교원들은 그가 그린 몇점의 수채화들을 사주었으며 정현

웅은 그 돈을 가지고 1929년 3월 미술공부를 하기 위하여 현해탄을 건넜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를 조국땅이 아득히 수평선너머로 멀어질 때 그는 기약할수 없는 자기의 앞날을 두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망국의 설음을 래일에 대한 한가닥의 희망으로 이겨내며 일본의 어느 한 미술학교에 들어간 그의 고학생활은 참으로 비참했다.

새벽일찍 깨여나 신문배달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발목이 시도록 달려야 하였고 공부가 끝나면 또 짐군자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역전과 주차장들을 헤매야 했다. 게다가 하숙집주인은 조선사람이라고 멸시하면서 하숙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갖은 행패질을 다하였다.

낯설고 물설은 일본땅에서 식민지청년이 당해야 하는 민족적멸시와 천대에 대한 울분은 그의 골수에 꽉 차올랐다.

일본에서 더이상 고학을 할수 없다고 생각

한 정현웅은 6개월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말았다.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 개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우리 민족, 아! 과연 언제면 이 나라의 하늘가에도 밝은 빛이 흘러들겠는가.

고향으로 돌아온 정현웅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간판이나 광고, 극단의 무대그림들을 주문받아 그렸으며 점차 삽화의 길에 들어섰다.

당시 삽화는 미술령역에 들지 못하였고 화가들이 경멸하는 소일거리로 인식되여있었다. 그러나 자재비가 적게 드는것이 출판미술이였고 더우기 삽화는 출판물의 종류가 늘어나는 조건에서 청탁이 많았다.

삽화를 창작하느라 여러곳을 다니면서 정현웅은 일제의 학정밑에서 우리 인민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그는 자기가 그린 유화 《녀자좌상》(1930년), 《3등대합실》(1933년) 등에서 피눈물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람회

들에 출품하였다.

정현웅은 이 작품들에서 압제의 사슬에 묶이워 신음하는 겨레의 피젖은 신음소리, 암담한 세상에서 음달의 꽃처럼 사그라져야만 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화폭의 중심에 담았다.

1936년 그가 어느 신문사에서 삽화를 전문으로 하고있을 때에 있은 일이였다.

어느날 선배미술가들과 기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한숨만 내긋고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놈들의 언론탄압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던 시기라 정현웅은 속짐작을 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의 물음이 그들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였던 울분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으로 될줄이야…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요.》

《우린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더이상 일제

놈들의 식민지노예로 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앙된 심정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들의 모습앞에서 정현웅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기에 저렇게 흥분되여있는것일가?

한 기자가 그에게 사연을 이야기해주어서야 그는 모든것을 알게 되였다.

1936년 8월 베를린에서 진행된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1등을 하여 세계를 들었다놓고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의 가슴에는 원통하게도 일장기가 그려져있었던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 인민이 일제식민지민족의 슬픔과 치욕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

정현웅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록 국제체육무대에서 우승은 하였지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것으로 하여 제 나라의 국기가 아니

라 일장기를 가슴에 달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의 설음을 비통하게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날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사들에서는 일본의 《아사히신붕》을 통해 마라손경기자료가 입수되자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선수의 사진화면을 가지고 신문편집을 하게 되였다.

그가 일하는 신문사의 기자들과 미술가들은 총독부에 보내는 얼마간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일장기를 지우고 그 자리에 월계수를 그려넣었다.

어떤 잡지들은 시상대에 오른 선수의 발만 보여주는 방법으로 손기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설사 일제놈들에게 나라는 빼앗겼어도 우리 조선민족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것을 선언한 애국심의 발현이였다.

정현웅은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기자선생, 후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흔연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정선생, 나라고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민도 이제는 식민지의 설음과 울분속에 헤매던 민족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정현웅은 놀라웠다. 그가 하는 말속에는 너무도 큰 의미가 담겨져있었던것이다.

《그건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 기자는 정현웅의 손을 꼭 잡고 흥분에 찬 어조로 말하였다.

《정선생, 이제는 우리 조선민족에게도 의지해야 할 기둥, 이 나라를 침략자들의 예속에서 구원해줄 위대한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는 정현웅에게 백두산에서 항일유격대를 거느리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며 일제놈들을 족치시는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정선생,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질 날은 멀지 않았소.》

그날 정현웅은 밤잠을 이룰수 없었다.

평범한 기자인 그의 말속에 담겨진 의미를 되새기며 그는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일제는 일장기말소사건을 계기로 애국적인 언론인들과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였으며 신문사를 정간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쇠사슬에 묶이워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담고있는 그들의 모습은 정현웅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일장기말소사건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있은 력대 필화사건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의 하나로서 언론, 출판계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탄압사건이였다.

하지만 이 일로 하여 정현웅의 반일의식은 더한층 강화되였다.

1940년대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략탈정책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정현웅은 이 시기 일제의 횡포속에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을 자기 화판에 피눈물로 새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가 1941년에 창작하여 미술전람회에 입선한 《대합실》은 해방전의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정현웅은 이 작품에서 역전대합실에 모여있는 각이한 인물들의 개성과 독특한 성격들을 능란한 화법으로 살리면서 그들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악랄성과 우리 인민들의 반항의식을 반영하였다.

당시 미술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일제의 굴레에서 살길을 잃고 만주의 북간도 같은데로 떠나게 된 한 빈민가족의 절망적인 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 《고뇌에 가득찬 인물과 그의 뒤통수를 노려보는 감시인을 그린 이 작품은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그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항거의식을 압축한 걸작》이라고 하였다.

일제에 대한 정현웅의 반항의식은 그가 1943년 제22차 미술전람회에 출품한 《흑외투》에도 잘 반영되여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기의 민족적량심과 기개를 주인공을 통하여 잘 형상하였다.

하기에 일제는 이 작품이 사상적으로 불순하다고 하면서 미술전람회에서 기각시키고말았다.

그러나 정현웅은 자기의 의기를 꺾지 않았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외면하고 일본놈들에게 굴복한다는것은 민족을 저버리는 반역행위였다.

어느날 뚝섬마을에 있는 그의 집에 한 동료가 찾아왔다.

정현웅은 몇해전 서울 룡산구에 있는 목사의 딸과 결혼하고 이곳에서 살고있었던것이다.

《정선생, 나는 도무지 리해되지 않소. 선생은 자기 재간으로 일본인들이 요구하는 작품을 그리면 지금같은 궁색한 살림살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수 있을텐데…》

구차한 자기 살림을 걱정하는 그에게 정현웅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차선생의 취지는 알만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기의 민족적량심을 팔아 부귀를 얻을수 없습니다.》

학력이 없는 독학의 젊은 화가가 자기의 작품을 발표할수 있는 기회는 전람회뿐이였다.

1940년대초부터 친일단체인 《단광회》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람회들을 수많이 진행하였다.

민족적인 량심을 저버린 일부 미술가들은 이 전시회에 일제의 비위를 맞추는 작품들을 경쟁적으로 출품하여 재부와 명성을 얻고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정현웅에게 이 전람회에 참가할것을 권고하였지만 그는 그들의 요구를 뿌리쳤다.

아무리 헐벗고 굶주려도 민족의 지조만은 절대로 굽힐수 없었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현웅이였기에 그는 일제가 강

요하는 《창씨개명》에도 끝까지 불응하였다. 이 일로 하여 그의 가정은 남달리 일제의 갖은 박해와 탄압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1945년 8월 15일은 정현웅만이 아닌 전체 조선인민에게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흠모하여오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시였던것이다.

그처럼 바라고 기원하던 조국해방의 찬란한 해돋이와 함께 암울하던 정현웅의 눈앞에도 광명의 빛발이 비껴들었다.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압제의 사슬속에 졸아들었던 가슴을 쭉 펴이게 하고 눈앞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밝게 비쳐주며 광명한 미래를 안겨주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였다.

해방과 더불어 정현웅은 드디여 삶의 희열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였다.

그는 서울신문사 출판부장으로 일하면서 잡지 《신천지》의 발간에 관여하였다.

《신천지》는 1946년 2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월간잡지였는데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여 싸운 항일운동가들을 소개하는 글을 싣고있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과 환희속에 들끓던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우에는 또다시 차디찬 된서리가 들씌워졌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첫날부터 인민위원회들과 애국적인 언론단체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애국자들을 무참히 체포학살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거리와 마을들은 또다시 인민들의 피와 눈물로 물젖었다.

인민들은 피어린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정현웅은 그들의 투쟁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잡지에 실었으며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간판들과 직관물들을 그려 시위대렬에 보내주기

도 하였다.

그러나 외세와 그와 야합한 민족반역자들의 탄압책동은 날을 따라 더해갔으며 남조선의 하늘가에 드리운 검은구름은 더 짙어만 갔다.

정현웅은 참담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북쪽하늘가를 부러움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 언제면 나도 북녘의 예술인들처럼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장군님의 품에서 내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을가?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야만적인 통치밑에서 음달의 꽃처럼 속절없이 시들고있던 정현웅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였을 때에야 비로소 다시 재생할 수 있었다.

고통과 질식에 허덕이며 즙없이 말라들어가던 서울은 또다시 생의 활력을 되찾았다.

여기저기에서 인민위원회들이 수립되였고 토지개혁들이 실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인민의 행복과 자유를 원한다면 다같이 인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하자!》

《전선에로! 전선에로! 인민의용군은 나아간다》

이 시기 정현웅은 남조선미술가동맹의 서기장으로 사업하면서 싸우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미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붓끝에서는 생기와 힘이 맥박쳤으며 화판에는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새 삶을 되찾은 환희와 열정에 넘친 인민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국앞에는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와 정현웅앞에는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정해야 하는가 하는 운명의 갈림길이 놓이게 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북으로 가느냐, 아니면 남에 그냥 남아있느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자기 인생의 좌표를 정하였다.

정현웅이도 그들과 함께 공화국의 품에서 진정한 민족의 예술을 하고싶은 일념으로 주저없이 북행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안해와 어린 자식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있었다.

남편의 이러한 고민을 알고있던 안해가 지체없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여보,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면 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가겠어요. 그러니 어서 북으로 떠나세요.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것이야 우리 조선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의지가 아니나요. 우리도 인차 당신을 찾아 북으로 가겠어요. …》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리별앞에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떠미는 안해! 이것이 정현웅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사랑하는 안해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천여리가 넘는 간고한 북행길은 험산준령을 넘고 죽음의 고비들을 헤치며 밤낮으로 이어지는 시련의 길이였다. 하지만 그 길이 진정한 삶의 길이고 력사앞에 떳떳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정현웅과 그의 일행은 참다운 운명선택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있었다.

정현웅은 이렇게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어버이수령님의 품으로 인생전환의 큰 보폭을 내디디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따뜻이 안아주고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회의장장식을 맡아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차례지는 영광앞에 정현웅은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아직까지 이렇다할 미술작품도 내놓지 못한 그였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의 길을 택한 정현웅을 믿

고 내세워주려고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1년 그에게 물질문화보존위원회 제작부장으로 사업하면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정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였다.

자신에 대한 크나큰 신임앞에 그의 가슴은 커다란 격정과 흥분으로 세차게 굽이쳤다.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고 더 훌륭하게 보존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가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으로 하여 눈굽은 젖어들었다.

아,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민족문화유산발굴보존사업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다니…

정현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민족애를 가슴깊이 절감하며 옛무덤벽화를 모사하는 사업에 자기의 온넋을 바쳐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사실 그는 어릴적부터 고구려무덤벽화에 대한 신비로움과 그것을 직접 보고싶은 충동을

안고있었다.

그는 후날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학교에 다닐 때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고구려시대의 벽화를 본 일이 있었다. 지금 흔히 출판물에 소개되는 강서큰무덤의 <현무>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모사가 시원치 않은것으로 보아 발굴당시에 서투른 화가가 그린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수천년전의 그림이라는데 대하여 일종의 신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선조들의 재능에 대하여 어린 마음에도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부터 고구려시대에 대하여 깊은 동경을 품으면서 고구려시대의 옛무덤을 직접 보고싶은 욕망이 절절하였다.

…

그런데 그 희망이 내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고구려무덤벽화를 직접 모사하게 될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력사에 길이 남을 국보를 빛내이는 중임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

할 일념으로 그의 가슴은 세차게 격동되였다.

그가 고구려무덤벽화를 모사할 준비를 갖추고있던 어느날 뜻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박시형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1946년 8월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찾아온 사람이였다.

해방전부터 박시형을 잘 알고있는 정현웅은 그를 언제나 존경하고있었다.

박시형은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서두를 뗐다.

《정선생이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해 고구려의 무덤벽화모사과제를 맡게 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구야 어디 가만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

그제서야 그의 긴급방문의 리유를 알게 된 정현웅은 그와 나란히 앉았다.

《박선생, 사실 나도 나에게 이렇듯 큰 영광이 차례질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적아간에 판가리싸움을 하

고있는 엄혹한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그렇듯 중요한 사업을 맡겨주실줄은…》

박시형은 깊은 감동에 젖어있는 정현웅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민족의 전설적영웅이 아니십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어데선가 둔중한 포소리가 울려왔다.

《사실 나는 그이의 뜻을 받들어 떠나는 정선생에게 꼭 해주고싶은 말이 있어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현웅은 심중한 기색으로 따라 일어섰다.

《물론 정선생도 잘 알고있지만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존하고 후세에 길이 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선생은 우리의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사업에 얼마나 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고계시는가를 다는 모를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박시형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긴지 한해가 되던 1947년 10월초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학자들이 꾸려놓은 조선력사전람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조선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며 예로부터 외래침략자들과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나라의 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잘 알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오늘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과학적세계관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력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

박시형의 이야기를 들은 정현웅은 흥분된 심정을 억제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참다운 조국

애, 민족애가 뜨겁게 어려오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돌이켜보면 유구한 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조국의 력사는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로 하여 여지없이 짓밟히고 외곡말살되였다.

일제와 그 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창조적재능이 이룩한 문화전통을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미쳐날뛰였으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는 물론 지어 우리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 하지 않았던가. 동서고금의 력사에 남의 나라 령토를 침략하고 병탄한 례가 수없이 있으나 그 어느 강점자도 이토록 악랄한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지 못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한 사이비력사가들의 책동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이 이른바 《동조동근》이라는 파렴치한 력사적날조속에 각일각 빛을 잃어가던 망국의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짓밟히는 민족의 얼을 놓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던가.

어찌 그뿐이랴. 이 땅에 침략의 불을 지른 미제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귀중한 력사유적과 유물들이 파괴되여가고있는가.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들이 략탈당하고 파괴되는 가슴아픈 현실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여온 그들이였기에 빼앗긴 민족의 력사를 되살려주시기 위해 력사연구와 력사유물보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앞에 더욱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것이였다.

《박선생, 내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겨안고 이번 고구려무덤벽화모사를 잘해내겠습니다.》

정현웅은 모사에 앞서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갔다.

사실 안악3호무덤을 모사할데 대한 과업을 받았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불안하기도 했던

그였다.

그것은 모사품이라고는 이전에 단 한점을 보았다는것외에 모사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모사방법에 대하여 책에서 읽은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일도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렇지만 정현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귀중히 여기시고 후세에 길이 전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힘과 용기를 내였다.

그는 우선 고구려의 옛무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 발굴보고서를 비롯하여 옛무덤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읽었고 옛무덤들을 답사하여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모사방법들을 연구해나갔다.

이렇게 되여 정현웅은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옛무덤들을 거의다 돌아보게 되였고 옛무덤들이 대체로 어떤 형식과 구조를 갖추었는가를 비롯하여 모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게 되였다.

정현웅은 또한 옛무덤의 벽화들이 조선화로 그려져있다는데로부터 그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연구하였고 고구려의 벽화를 모사하면서 조선화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나갔다.

그가 처음으로 모사작업을 진행한것은 안악3호무덤이였다.

이 무덤은 4세기 중엽에 만든 고구려벽화무덤이였는데 일명 고국원왕릉이라고도 하였다.

정현웅이 화가 손영기와 함께 모사를 위해 현지에 도착하자 이곳의 일군들과 마을사람들이 뜨겁게 맞이해주었다.

그들은 이들로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1949년 11월 몸소 이곳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전 일제놈들이 우리나라의 력사유적들을 마구 파괴하고 귀중한 유물들을 수많이 략탈하여갔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교고학자들에 의하

여 안악3호무덤이 발굴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시였다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무덤의 내외부를 세심히 돌아보시며 옛무덤의 벽화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앞으로 옛무덤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는것이였다.

정현웅은 자기의 어깨우에 짊어진 임무가 단순히 옛무덤을 모사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족의 문화유산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매우 성스럽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는 자각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고국원왕무덤은 왕릉으로서 그때까지 알려진 고구려벽화무덤들가운데서 그 규모의 크기에서나 벽화내용의 풍부성에서 단연 으뜸가는 우리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였다. 지하궁전을 방불케 하는 왕릉은 4세기의 동방문화를 대표하는 세계굴지의 유적으로서 고구려의 위력과 문화의 높이를 과시하고있었다.

정현웅이 왕릉안에 들어서니 벽화들은 모두 돌벽우에 직접 그려져있었다.

문칸에는 이 무덤에 묻힌 왕을 호위하는 위병을 그렸으며 앞칸에는 의장대와 수박희, 음악과 무용 등의 장면들이 생동하게 그려져있었다.

서쪽 곁칸에는 고구려에서 왕만이 썼다는 《백라관》을 쓰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주인공인 왕이 문무관들을 거느리고 정사를 보는 장면과 왕비가 시녀들을 거느리고있는 장면을 그렸고 동쪽 곁칸에는 부엌, 고기창고, 우물, 방아간, 외양간, 마구간 등이 그려져있었다.

정현웅은 회랑에 그려진 《백라관》을 쓰고 소수레를 탄 주인공이 《성상번》기, 《뚝기》, 《정절》 등 고구려왕만이 가지는 의장기들과 문무백관들, 고취악대들과 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는 대행렬도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회화기법앞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매개 벽화들은 그것을 그린 솜씨들이 서로 달랐는데 특히 잘된것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림들이다.

그는 주인공화상을 보면서 비록 신분의 높이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여 그리는 위계법이 적용된 시대적인 제약성이 있지만 우리 나라 초상화의 오랜 연원을 밝혀주는 귀중한 그림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행렬도 역시 여러 줄의 복잡한 종대행렬이 겹치는 상태를 부감도식으로 능숙하게 표현하고있었다.

250여명이 넘는 등장인물의 수와 화면의 크기, 복잡하고 다채로운 내용면에 있어서 그 회화기법이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것임을 과시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무덤벽화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물론 세계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손꼽히는 대작이였다.

정현웅은 이곳을 돌아보면서 고국원왕릉은

무덤칸의 구조와 벽화내용을 통하여 고구려의 력사와 풍습, 건축, 회화, 음악, 무용, 무기, 무장 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하기에 그는 안악3호무덤을 돌아본 자기의 심정을 후날 글에 이렇게 썼다.

《고국원왕릉의 옛무덤을 처음 보았을 때 그 규모의 웅대함과 가지가지의 풍속이 그려져있는 벽화는 참으로 황홀했다.

나와 동행한 손영기동무는 바로 이 옛무덤을 발굴할 때 직접 참가한 동무였는데 옛무덤의 문이 빙긋하니 열리자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여 만세를 부르며 춤까지 추었다는것이다.

참으로 그럴만도 하였다. 땅속에서 수천년전의 거대한 축조물과 함께 그 당시의 찬란한 화폭, 학술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그림들을 맨 처음으로 보았을 때의 심정을 가히 짐작할수 있지 않는가.

옛무덤을 처음 발굴하였을 때의 벽화는 광선과 공기의 작용을 받지 않은 관계로 미술가가 방금 붓을 뗀듯이 선명하였다.》

안악3호무덤을 돌아본 정현웅은 그 규모의 웅대함과 가지가지의 풍속이 그려져있는 벽화의 황홀함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그대로 모사하여 력사에 남기리라 굳게 결심했다.

1952년 9월부터 그는 본격적인 모사작업에 들어갔다.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기에 진행되는 작업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다.

옛무덤속에 들어가면 외부세계와는 완전히 격폐되여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청각을 잃어버린듯 깊은 정적속에서 벽과 마주앉아 천여년전의 그림을 한붓, 한붓 옮겨놓는 그 정경을 상상하면 옛무덤벽화모사라는것이 어떤것인가를 그대로 짐작할수 있었다.

옛무덤벽화모사에서 가장 힘든것은 천정모사였다.

천정에 그려진 그림을 모사할 때에는 동발을 매고 통나무발판우에서 그리게 되는데 앉아서 그리면 천정그림과 화판에 올린 그림이 반대로 보이게 되므로 중요한 부분은 발판우에 누워서 한팔로 화판을 뻗치고 그려야 하였다.

그보다 더 힘든것은 천정을 떠내는 공정인데 붓끝을 우로 향하게 하고 발을 추켜들고 머리를 뒤로 제낀 자세로 오래동안 지속한다는것은 정말이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동발과 천정사이에 화판을 움직일수 있을만 한 일정한 공간이 있으나 앉으면 천정에 팔이 닿지 않고 그렇다고 일어설수도 없는 거리여서 항상 무릎을 꿇거나 엉거주춤하게 서야만 하였다.

정현웅은 후날 그때 너무 힘들던 나머지 서유럽의 이름있는 화가가 천정에 그림을 그리고 얼마동안 머리를 뒤로 제끼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 하면서 모사하던 시절을 즐겁

게 추억하였다고 한다.

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루빨리 자기가 맡은 모사작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붓을 쉬임없이 움직여나갔다.

자신을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과 믿음,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후세에 길이 전해주시기 위해 그렇듯 깊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그이의 로고를 생각하며 일하고 또 일하였다.

정현웅은 1952년 9월부터 시작된 모사작업을 1963년까지 10여년동안 진행하였으며 안악 3호무덤의 벽화만도 이 기간에 네차례나 모사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5년 3월 친히 정현웅이 모사한 이 작품들을 보아주시고 그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뜨겁게 이어지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과 믿음이 있었기에 정현웅은 그후에도 옛무덤벽화모사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훌륭히 완

성할수 있었다.

정녕 정현웅은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겼기에 어제날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며 후세에 길이 전하는데서 뚜렷한 자욱을 남길수 있게 되였다.

마르지 않는 붓

정현웅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창작의 날과 달을 이어갔다.

그는 옛무덤벽화모사작업을 진행하는 바쁜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우수한 도안유산들을 수집정리하여 《조선력대도안집》을 발행하였다.

전후에는 유화 《모란봉에서》, 그림책 《친한 동무》(1956년), 《어느때가 좋은가》(1957년)를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담은 작품들도 많이 내놓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거둔 성과들을 높

이 평가해주시면서 1957년에 그를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출판화분과 위원장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공화국의 출판미술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은 정현웅의 심장을 드높은 창작적열정과 흥분에로 높뛰게 하였으며 그가 전후 천리마대고조의 거세찬 불길속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을 더욱 고무추동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정현웅은 하나의 작품을 위해 제강소의 용광로앞에서 용해공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출강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전야에서 농민들과 함께 허리가 늘씬하도록 황금이삭들을 걷어들이기도 하였다.

현실은 훌륭한 창작적열매를 맺게 하여주는 비옥한 토양이였다.

그가 조선화를 많이 창작한데도 깊은 사연이 있었다.

1954년 10월 어느날 그는 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화는 오래전부터 채색화로 발전되여왔다고, 강서고분이나 안악고분벽화에서 보는것처럼 벌써 세나라시기 화가들은 여러가지 색을 써서 그림을 아름답게 그렸다고, 고려시기에 와서 일부 화가들속에서 란초요, 참대요 하면서 먹으로 그리는 수묵화가 류행되고 조선봉건왕조시기 그것이 성행하였지만 채색화는 없어진것이 아니며 그때 당시에도 아름다운 채색화가 적지 않게 창작되여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채색화의 우수성을 살려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인 로력투쟁과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고, 앞으로 우리는 조선화의 우수한 특징과 전통적화법을 깊이 연구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정현웅에게 실

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력사가들이나 전문미술가들도 알지 못하던 력사문제들과 조선화의 발전방향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밝혀주시는 그이이시야말로 민족예술의 영재이심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화법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습득하여 《유격근거지에서 부녀회원들의 활동》(1961년), 《거란침략자를 격멸하는 고려군》(1965년), 《실뜨기》(1966년)를 비롯한 우수한 조선화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이 그림들은 조선화의 가장 오랜 전통으로 되고있는 힘있는 필치, 강약과 속도감이 있는 류창한 선조, 담박한 색조와 여러가지 기법들과 처리방법들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화화법의 특기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조선화 《실뜨기》는 할머니와 손녀사이의 실뜨기놀이장면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오늘도 전문가들과 인민들의 높은 호

평을 받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대할 때마다 정현웅의 가슴속에 새롭게 자리잡는 소원이 있었다.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돌아본 그는 강렬한 충동을 걷잡을수 없었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력사와 시대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토록 세기적인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인민들에게 더 아름다운 행복의 별천지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심혈을 바쳐가시는 그이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심으로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던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미술가동맹의 한 일군을 찾아가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창작할 자기의 결심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절세위인의 존귀하신 영상

을 훌륭히 형상할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터놓았다.

심중한 표정으로 정현웅의 말을 다 듣고난 일군은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정현웅은 집단의 적극적인 도움과 방조밑에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수령형상주제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맞고 보내는 사색과 탐구의 날들에 그는 자기의 한 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기록될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창작생활과정에 터득한 조선화의 기법과 특성, 창작방법들을 다시금 숙련하고 완성하며 작품의 형상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날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으며 온 나라에 새겨진 그이의 력사적인 자취들을 더듬으며 창작적사색을 무르익혀갔다.

이처럼 작품창작을 위해 최대의 심혈을 바

쳐온 그는 드디여 1968년에 조선화 《천리길을 걸으시여 만경대고향집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비롯한 수령형상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작품들은 어리신 나이이시건만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열렬한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워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어버이수령님을 자기의 작품에 모시고싶어하던 간절한 소원을 이룬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과연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기에 그는 자기의 인생과 미술창작에서 최전성기를 이룬 시기라고 말할수 있는 1968년이 다 저물어가는 섣달 그믐날 밤 안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여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한생토록 가슴속에 고이 품고있던 가장 큰 소원을

성취하지 않았는가 말이요. 내 생명의 은인이시며 스승이신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을 창작하였으니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데 있겠소.》

그후에도 그는 조선화 《비밀혁명소조모임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72년)를 비롯하여 그림책 《아름다운 만경대》를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림책 《아름다운 만경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만경봉의 소나무에 오르시여 무지개잡이를 하시던 뜻깊은 이야기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혁명의 큰 뜻을 키워가시던 감명깊은 이야기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형상하여 학생들의 교양에 적극 기여하였다.

섬세한 선묘와 담채방법으로 처리한 부드러운 색조로 이야기의 장면들을 선명하게 펼쳐놓은 이 그림책은 매 장면들이 독자적인 회화작품의 화폭같이 높은 수준에서 형상되여 이 시

기 그림책창작의 대표작으로 되고있다.

정현웅은 아동주제분야의 미술작품창작에도 큰 힘을 넣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상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그는 아동화들인 《모두다 사이좋게》, 《달맞이》, 《누구 키가 더 큰가》를 비롯한 여러 편의 아동화들을 창작하였다.

어미닭이 손풍금을 타고 병아리들이 깃을 펴고 춤추는 모습을 그린 《모두다 사이좋게》, 토끼가 보이는 둥근달이 농가의 지붕우에 솟아오르자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부르는 모습을 그린 《달맞이》 등은 장식적인 수법을 적용하여 간명하게 내용을 표현하고있다.

그가 국가미술전람회에서 1등상을 받은 수채화 《누구 키가 더 큰가》는 우리 어린이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행복동이들로 자라나는 모습을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국보적인 작품으로 오늘도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키를 재보기 위해 서로 등을 돌려댄 두 어린 총각애를 가운데 놓고 벌어지는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생활그대로의 모습으로 일반화한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고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의 생활형상에서 꾸며낸것이란 티끌만 한것도 없다.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서 오는 키를 재여보는것과 같은 보통있는 생활, 이런 생활이면 의례히 있게 되는 소꿉동무들의 호기심과 승벽내기, 이것이 작품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그림이 깊은 인상을 주는것은 어린아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끝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한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들의 생활,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지향을 따뜻한 애정으로 불러일으키는 소재로써 재

치있게 일반화하였기때문이다. 다섯 아이의 모습은 참으로 깨끗하고 순결하며 맑고 명랑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정현웅은 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창작적탐구와 사색을 거듭하던 끝에 주제내용을 아이들의 형상만을 통하여 밝혀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환경묘사를 대담하게 생략하였다.

이 작품은 여러차례에 걸쳐 대외전람회들에 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현웅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오랜 기간의 삽화창작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삽화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금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1950년대말 《평양신문》에 련재된 엄흥섭 작 장편소설 《동틀무렵》(1부—3부)에 편집되였던 삽화들을 기억하고있다.

정현웅이 이 삽화창작을 자진하여 맡은 시기는 그가 새 가정을 이룬지 며칠이 지난 때였다.

사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몇해가 지났지만

남조선에 있는 안해와 자식들을 그리며 새 가정을 이루지 않고있었다.

언제면 조국이 통일될가?

친지들은 그에게 그 마음은 잘 안다고, 그러나 언제까지 그들을 기다리며 홀로 살수야 없지 않는가고, 혈육과 갈라진 아픔을 안고 모대기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것은 바로 민족분렬을 꾀한자들뿐이라고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더 힘차게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그를 오래동안 설복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그들의 소개로 남조선에서 태여나 떠돌이배우생활을 하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평양극장(당시)에서 배우로서의 재능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고있는 남궁련과 결혼하게 되였다.

그들이 새 가정을 꾸린지 얼마 안되여 장편소설 《동틀무렵》에 대한 삽화가 제기되였던 것이다.

이날 새 연극준비를 하던 남궁련은 밤이 퍽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남편인 정현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늦게 돌아오면 항상 저녁식사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군 하던 남편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방 한구석에 상보를 씌운 밥상을 보자 남궁련은 속에 짚이는데가 있어 대동강기슭으로 걸어나갔다.

아닌게 아니라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보도의 가로등밑에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궁련은 남편의 곁에 앉으며 물었다.

그제서야 안해를 알아본 정현웅은 선웃음을 지어보였다.

《언제 퇴근했소?》

《방금전에요.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군요.》

정현웅은 대답대신 안해의 손을 다정히 잡

았다.

《여보, 사실은 내 오늘 장편소설 <동틀무렵>에 대한 삽화를 자진해서 맡았소. 당신도 알다싶이 그 소설이야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소설이 아니요.》

정현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멀리 어둠속에 잠긴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인민군대를 따라 북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던 안해의 모습, 언제나 기쁨과 웃음을 주던 자식들의 모습을 그려보는듯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고있었다.

아, 조국통일! 우리 민족의 숙원이 이루어질 그날은 과연 언제일가?

남궁련은 남편의 심중을 깨닫고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여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은 기어이 통일될거예요. 통일되는 그날 우리 제일 선참으로 고향에 찾아가자요.》

정현웅은 안해의 두손을 꼭 잡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우리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더 힘껏 일하기요.》

언제나 조국통일의 그날만을 그려온 정현웅이였기에 그는 장편소설 《동틀무렵》에 대한 삽화를 그처럼 훌륭히 인상깊게 형상할수 있었던것이다.

신문에 편집되는 소설들의 중심에 형상된 삽화마다에는 통일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정현웅이 창작한 작품들은 높은 예술적기교로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고 또 개성적인것으로 하여 국가미술전람회와 부문전람회들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입상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국제도서전람회에서는 그가 창작한 삽화에 금메달이 수여되였다.

정현웅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그토록 소원하던 민족예술의 나래를 활짝 펴나가는 과

정에 터득한 지식들을 실은 도서 《조선미술이야기》와 《력사화와 복식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권의 도서들과 소론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후배화가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남다른 영광과 행운을 받아온 일들을 자주 들려주면서 그들이 고마운 공화국의 품을 위해 충정과 보답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도록 고무해주군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해온 정현웅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국기훈장 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그가 창작한 국보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조선미술박물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전시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지도록 해주시였다.

1976년 7월 어느날 자기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게 된 정현웅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듯 한 얼굴표정으로 화판에 마주섰다.

심한 동통을 애써 참으며 무릎우에 화판을

놓고 창작의 붓을 든 그는 옆에서 걱정하는 안해에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마오. 난 여한이 없소. 침략자들의 학정밑에 참다운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 몸을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듯 온 나라가 다 아는 화가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지 않았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는 가쁜숨을 몰아쉬고나서 안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이제 조국이 통일되면 남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우리 수령님과 당의 품에 안겨 누린 복받은 삶에 대하여 그대로 이야기해주오. 그들을 만나면 내가 그 모든것을 다 말해주자고 했는데…》

생의 마지막순간이 다가오는것을 직감한 정현웅은 자식들을 불러다놓고 이렇게 당부하였다.

《너희들은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자식들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유언!

그것은 언제나 자기의 축복받은 삶에 대한 환희와 기쁨, 받아안은 은정과 배려를 심장으로 느낄줄 아는 참다운 인간에게서만 나올수 있는 심장의 토로였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간 한 미술가를 잊지 못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현웅이 남기고 간 자식들을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 보

상 식

우리 나라의 별칭이였던 《진단》의 유래

《진단》이라는 별칭의 뜻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우뢰 진》자에 《아침 단》자를 결합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뢰 진》자에 《박달나무 단》자를 결합한것이다.

《진》은 동방을 의미하며 《아침 단》자와 결합된것은 동방의 아침의 나라라는것이고 단군을 의미하는 《박달나무 단》자와 결합된것은 동방의 단군의 나라라는것으로 해석된다.

내주시여 국립예술단의 작곡가로,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배우로 키워주시고 그들이 자기의 희망과 꿈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화가 정현웅은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는 오늘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있다.

동방의 아침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진단》은 발해와 고구려에서 써왔다.

백승현이 쓴 《고려사》 123권에는 《마니산참성단에 임금이 친히 제사를 올리면 우리 나라는 진단의 대국이 될것》이라고 기록되여있다.

동방의 단군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진단》은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모든것이 말살되였던 시기에 민족성을 되살리는 뜻에서 많이 써왔다. 1934년에 지식인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 언어, 문학 등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내온 《진단학회》와 그 기관지 《진단학보》 등이 바로 대표적인것으로 되고있다.

【단편소설】

철마의 꿈

조 정 협

《평양행》 렬차를 운행한다는 소문은 삽시에 온 서울시내를 휩쓸며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해방의 환희를 싣고 내닫던 북행렬차들이 허리잘린 국토의 중단점에서 가슴찢는 호곡소리를 터뜨리던 그날로부터 70여년만에 날아든 희한한 소식이였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인총이 서울역을 향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역 앞마당에서는 누군가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문익환목사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읊고있었다.

난 올해안으로 평양으로 갈거야
기어코 가고말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롱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림진강을 헤염쳐서라도 갈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거지

시랑송에 이어 6.15시대에 남녘사회를 풍미했던 명가수들이 통일주제의 노래들을 흥취나게 부르며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드디여 《평양행》 기차표판매가 시작되자 흥분한 군중은 《와—》 하고 매표소로 밀려가기 시작했다. 기차표를 받아든 사람들은 마치 하늘나라에 가는 차표라도 얻은듯이 신기하게 들여다보며 렬차를 향해 꿈속을 걷듯 걸

어갔다.

서울땅에 철길이란것이 생겨 일찌기 본적 없었던 이 이채로운 풍경은 새해의 첫아침 북에서 울려온 열렬한 애국애족의 호소에 화답하며 일어번지기 시작한 통일열풍속에 마련된것이였다.

지난 4월 이 나라 강토에 감돌던 전운을 가시며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남수뇌분들의 감격적인 상봉과 평화번영의 위대한 선언으로 우리 겨레의 통일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더 거세여지고있었다.

방금 이곳에 도착한 어느 월간잡지사 기자 윤수연은 중진 언론인답게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리하게 투시해보았다.

물론 현실의 《평양행》은 앞날의 일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의 판문점선언을 마치 통일 그자체로 받아들이고싶어하는 분위기는 겨레의 마음속에 간직된 통일의 소망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눈물겹게 말해주고있었다.

매표소에서 받아든 기차표를 들고 역을 향해 가던 수연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눈길을 들었다.

아침일찍 《평양행》 기차를 타러 간다며 저 혼자 훌쩍 나가버렸던 남편 강정식이 그앞에 버티고 서있었다. 강정식은 이런 곳에서 수연을 만난것이 놀랍다는듯 한 태도였다.

《당신이 어떻게 왔소?!》

몹시 귀에 거슬리는 남편의 이 물음은 수연에게 엊저녁에 있은 불쾌한 일을 상기시키였다.

어제 윤수연은 면식있는 한 철도역원으로부터 어떤 할머니가 북행길이 막히던 때 떼였던 신의주행 기차표를 가지고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였다. 하여 허위단심 그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기차표는 구경조차 못해보고 돌아오게 되였다.

《그건 아무에게나 보여주는게 아닐세.》

이것이 늙은이의 대답이였다.

집에 들어선 수연은 뻐근해진 무릎을 주무르

며 백발녀인의 외고집에 대해 한바탕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남편은 안해를 두둔해줄 대신 도리여 《누가 당신에게 그런걸 보여주겠소?》 하며 약을 올리는것이였다.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수연은 오연히 고개를 쳐들며 그앞을 지나쳐갔다. 강정식은 잔뜩 뿔이 난 안해를 달래일 셈으로 능청스런 웃음을 지으며 다가섰다. 다음순간 수연의 손에 《평양행》 기차표가 들려있는것을 본 그는 갑자기 껄껄거리며 웃어대는것이였다.

《당신도 <평양행> 기차를 타러 왔소?!》

수연에게는 그것이 《당신 같은 녀자까지…》 하고 야유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나친 선입견일수도 있겠지만 수연이 피해의식을 느끼게 된 사연이 있었다.

사실 그들은 어린시절 한마을에서 자라난 사이였고 대학때에는 선후배관계이기도 하였다.

대학시절 이들은 함께 렬차려행을 할 때가

많았다. 특히 방학이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현장들을 찾아 다정히 손잡고 렬차에 오르군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길이 사회진보와 통일에로 이어진 길이라는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동승의 길에 사랑을 맺은 그들은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통일을 향한 하나의 꿈만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 언약을 나누었다.

강정식은 지금도 그 시절의 언약을 굳게 지켜가고있었다. 지난해에 전 지역적으로 거세차게 벌어진 초불시위때에도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매국《정권》의 악정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섰었다.

하지만 수연은 결혼후 차츰 열의가 식어가기 시작하였다. 부부가 렬차에 동승하는것은 과거의 일로 되여갔다. 강정식은 몹시 섭섭해하였지만 수연은 가정사를 운운하며 가도가도 끝없는 길로 떠나는 남편을 멀리서 근심스레 바라볼뿐이였다.

이른바 대중의 의식을 계몽한답시고 기염을 토하던 지식인으로서 량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에게도 사회진보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온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데서 위안을 찾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인가 첫 북남철도개통식이 있은 뒤였다. 윤수연은 대학시절 함께 기차를 타고 다니던 한 녀동무가 쓴 글을 보고 몹시 흥분되였다.

옛시절의 랑만이 되살아난 수연은 통일렬차 달리는 래일을 꿈꾸며 청춘을 바쳐온 나날에 대해 회고하는 형식의 도서를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학시절 동료들이 기차를 철마라고 즐겨 부르던것을 생각하며 그는 책제목을 《철마의 꿈》으로 달았다.

하지만 이후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인간의 고상한 꿈을 범죄로 몰아가는 독재의 망령이 부활하면서 《철마의 꿈》은 시련을 겪

게 되였다.

초고를 본 출판사의 모 인물들은 정세흐름에 매우 둔감한 글이라느니, 골수좌파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느니 하고 모독하며 원고를 대폭 수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를 들고나올 때 수연의 가슴은 통일의 길이 아직 험난하고 끝이 묘연하다는 실망감으로 가득찼다.

그후 그는 도서집필을 그만두었으며 원고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도 못했고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안해의 재기에 흡족해하며 여러모로 방조해주던 강정식은 시무룩해졌다. 금슬좋기로 소문난 그들이였지만 강정식은 그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꿈없는 녀자라느니, 철새라느니 하며 안해의 부아를 돋구군 하였다. 바로 지금처럼.

수연에게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강정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왕 떠난 길이니 함께 가자고 청하였다. 동정어린 그 목소리에 더

욱 화가 난 수연은 서로 자기 갈길을 가자고 잘라 대답하고는 가던 걸음을 재촉해갔다.

역홈에 들어선 수연은 역표시판앞으로 다가갔다.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어제 옛 기차표문제로 수연을 불쾌하게 만든 그 늙은이였다.

오늘 아침 뜻밖에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다.

늙은이는 수연이를 돌려보낸 뒤 생각이 많았다며 오늘 운행한다는 《평양행》 기차에 함께 올라 이야기를 나누고싶다고 하는것이였다.

수연이 서둘러 역으로 나오게 된것은 그때문이였다.

렬차를 향해 모여온 사람들이 승강구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왜서인지 그때까지도 기다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차마치를 든 사람들이 축함이며 차바퀴 등을 검사하며 바삐 돌아가는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연에게는 어제만 해도 자기를 랭대

했던 늙은이가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가지 생각이 윤수연의 뇌리를 치며 떠올랐다.

그는 윤수연과 성이 다를뿐 이름이 꼭같았다. 하지만 소개자로부터 한수연이라는 그 녀인의 이름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녀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고향이 경기도 안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연은 심중해졌다.

눈보라소리 스산하던 어린시절의 어느날이 질주하는 렬차마냥 그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깊은 밤 문을 두드리던 한 녀인, 퍼렇게 언 그 얼굴.

그때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녀인을 무자비하게 몰아내였다. 그지없이 선량한 아버지가 아니였던가.

그 일을 떠올리자 또 하나의 모습이 거기에

겹쳐들었다. 림종을 앞두고 괴롭게 신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한수연, 나를 용서해.》

피끗 이 늙은이가 그 한수연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수연은 그에 대해 더 알아볼수 없었다.

무안을 당하고 그 집 문턱을 나서는 수연의 마음속에는 랭담한 늙은이에 대한 고까운 감정만이 가득 쌓여있었다.

끊임없이 오고가는 려객들을 바라보는 윤수연에게는 그가 정말 한수연일수도 있으며 자기를 알아보고 만나려는것일수 있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오늘의 자기 모습에서 옛시절의 어린 소녀를 알아본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만나려는 리유는 무엇일가. 그리고 왜 하필 《평양행》 기차에서 만나려는것일가.

머리속을 떠도는 상념들을 깨치며 출발신호

가 울리였다. 역홈의 여기저기에 웅기중기 서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기차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초조한 눈길로 승객들을 바라보던 수연은 백발의 한 녀인이 기관차 뒤차량의 승강구앞에서 서성대는것을 보았다. 이내 녀인은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승강구안으로 들어갔다.

어제 만났던 그 녀인이 분명했다. 그도 수연을 찾던 모양이였다. 수연은 급히 그쪽을 향해 걸음을 다그쳐갔다.

혹시 오늘의 이 려행이 아주 괴로운 일로 될수 있다는 예감에 싸인채 수연은 승강구안으로 들어섰다.

차칸에서는 군데군데 패를 지어 모인 각이한 년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떠들썩 이야기판을 벌려놓고있었다.

《다음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철도, 도로련결문제입니다.》

흰 샤쯔에 파란 넥타이를 졸라맨 멋쟁이가 판문점선언내용이 찍힌 신문을 들고 열심히 설

명하고있었다. 오래전 로동현장에서 의식화활동을 하면서부터 언론을 통해 그 얼굴이 꽤 알려진 사나이는 능란한 말솜씨로 청중을 끌어당기며 화제를 이끌어갔다.

주위에는 키가 늘씬하고 코밑이며 턱과 지어 목에까지 수염터가 거뭇한 장년사나이와 이마가 볼록 튀여나오고 뭉툭한 코가 약간 쳐들릴사 한 중년부인, 얼굴이 해말쑥한 서너명의 대학생처녀들 지어 아빠의 손목잡고 아장아장 걸어온 코흘리개아이까지 둘러서있었다.

《철도를 국토의 힘줄이라 했던가요? 그런데 우리 철도는 1945년 9월부터 북행길이 뭉청 끊긴채로 있었으니 이 나라는 70년나마 힘줄잘린 반신불수로 산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을 암만 말해봐야 절름발이 활개짓일뿐이죠. 참, 분통한노릇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술계의 중견인물쯤 되여보이는 사람들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고있었다.

《모네가 마차나 소달구지 따위를 놀래우며

질주하는 거대한 <괴물>에서 받은 인상을 자기의 독특한 색채로 표현하고저 했을 때 졸라는 무정한 쇠바퀴우에 올라앉은 문명의 예측할수 없는 미래를 불안스럽게 바라보며 <야수인간>을 써나갔습니다. 기차란것이 생긴 후 인간의 생활에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것입니까. 살길찾아 저 남쪽끝에서 떠난 가난한 농부가 하루밤 지내고나면 벌써 먼 북쪽에 닿게 되고 어느 시골처녀가 차칸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미남자와 눈을 맞추는 일이라든가, 그래가지고는 자유결혼을 한다고 탈가하는 일이라든가, 하여튼 예전엔 상상할수 없었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났지요.

렬차는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며 질주해갔습니다. 하지만 1945년의 이 나라 철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겁니까. 그건 력사의 단절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렬차가 우리를 싣고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또 다른쪽에서는 모양새가 아주 끼끗한 20대

젊은이들이 자못 진지한 어조로 대세의 추이를 론하고있었다. 시국토론을 하며 독재자들을 불같이 성토하던 자기들의 대학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였다.

통일이 급행렬차처럼 들이닥칠거라느니, 철도로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게 될거라느니 하는 랑만적인 이야기들도 화제에 오르고있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이 사회는 또 한번 흑백의 바둑판처럼 나뉘여졌다.

구치소의 수인들마저 력사적인 장면을 박수치며 시청할 때 매국배족적악정을 저지른 죄과로 민중의 버림을 받은 이전 집권자와 세칭 《MB》로 불리우는자들은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감방벽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한다.

우익정객들과 《엄마부대》며 보수단체회원 몇이가 거리에 뛰쳐나와 《종전선언반대!》, 《미국을 배신말라!》고 피대를 돋구기도 하였다.

여의도에서는 대세에 어두운 한 보수정객이

판문점선언을 비방하다가 한때 그를 추종하던 젊은이에게 뺨을 얻어맞고 쓰러지는 희비극이 벌어졌다고도 한다.

통일을 갈망해온 민중은 성취의 희망에 들떠있었고 외세에 의지하며 반공의 그늘속에 생존해온자들은 분노와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있었다.

수연이는 늙은이를 찾아 사위를 둘러보는데 출발을 예고하는 기적소리가 울리고 묵직한 강철바퀴가 서서히 레루우를 미끄러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때 건너편 승강구쪽에서 서로 다투는듯한 거센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많고 시비를 가려주기 좋아하는 수연은 이런 날에 무슨 일인가 하며 급히 그리로 다가갔다.

의외에도 한 할머니가 막 달리기 시작한 렬차에서 내리겠다고 떼를 쓰는것이였다.

《난 잘못 탔어! 내리겠다니까.》

술렁거리며 모여선 승객들이 그 이상한 늙

은이를 만류하고있었다.

《갑자기 왜 내린다고 그래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된다니까요.》

혹 치매를 앓는 늙은이가 아닌가 하며 안스러운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던 수연은 반색을 지었다. 오늘 자기가 만나야 할 바로 그 녀인이였던것이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녀인은 눈길도 들지 않은채 마뜩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분명 <평양행> 기차표를 샀는데 이 렬차는 글쎄…》

그가 착각한것이라고 생각한 수연은 《어머니, 이 기차가 바로 그 <평양행> 기차랍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옆에 섰던 젊은이들도 이 렬차가 통일문화행사로서 도라산역까지 가게 된다는데 대해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그제서야 녀인은 《아차, 이 정신.》 하며 허

거픈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수연에게는 문득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부가 밤늦게 정담을 나누다 홀가분한 몸으로 막 잠자리에 들려할 때 울려오는 문소리.

놀라서 돌아보며는 늙은이가 《아이쿠, 이 정신 좀 보지.》 하며 황황히 돌아나간다. 자기네 가정에서 종종 있군 하는 멋적은 순간이였다.

수연은 《어머니 년세엔 다 그렇답니다.》 하고 말하며 어색해하는 늙은이의 마음을 가볍게 눙쳐주었다.

허연 머리채를 흔들며 수연을 쳐다보던 녀인의 얼굴에서 주름살들이 해살처럼 쫙 퍼져나갔다.

《임자였구만. 난 자넬 못 만날가봐 가슴이 다 덜컥 했다네.》

그들은 우르르 모여왔던 사람들사이를 지나 차창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수연은 마주앉

은 녀인의 모습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제 집에 돌아온 수연은 직업적인 호기심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녀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었다.

젊은 시절부터 통일운동에 몸을 담아온 녀인이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1970년대초에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적이 있다는 사실이였다. 그 재판은 군부독재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길에 나선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꾸민 날조극이였다.

…

《이름이 윤수연이라고 했지?》

녀인의 목소리가 상념을 깨치며 울려왔다.

《이름같은 사람과 동승하게 되누만. 하긴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지.》

물론 동명이인과 만나는것은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였다.

유명짜한 배우와 이름이 같으면 뜻밖의 륭

숭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인망있는 사회활동가와 이름이 같으면 무슨 사업을 벌리든 시작부터 권위가 생긴다는 말도 있다. 그런가 하면 패륜아들 즉 나쁜 정치인이나 유명짜한 강도와 이름이 같은탓에 억울한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

수연은 이 녀인과의 상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것인지 생각해보았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와 만난것도 연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차창밖으로는 전주며 나무들이 덮칠듯 달려들다가는 언뜻언뜻 뒤로 번져지며 사라져가군 하였다.

《그럴듯해. 나도 어제 자네를 푸대접해 보내고나서 혹 어떤 인연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더라니까.》

수연은 녀인이 자기가 어린시절에 본 그 녀인일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혹 윤정수라는분을 아시는지요?》

그것은 수연이 아버지의 이름이였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갔던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윤정수라구?!》

녀인은 매우 놀라워하였다. 그는 두눈을 부릅뜨며 수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헌데 임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수연은 우연히 알게 된 이 녀인이 아버지가 림종시에 찾던 그 한수연임을 놀라움속에 확인하게 되였다. 하지만 윤정수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직 말하고싶지 않았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또 제 직업이 그런거니까요.》

수연의 눈길은 창턱에 놓여있는 분홍빛찔레꽃송이에 가멎었다. 기차의 진동에 가늘게 떠는 꽃송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연의 귀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오래전 어느 겨울밤 우리 집에 왔던 한

녀자가 생각나니? 그때 넌 그가 누구냐고 물었지?》

림종을 앞둔 시각 딸을 불러앉힌 아버지는 수십년전의 한가지 사실을 상기시키였다. 수연은 그것을 잊지 않고있었다. 어린 소녀의 가슴에 너무도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이였던것이다.

수연에게는 그때 자기들이 살던 집이며 방안의 정경이 우렷이 떠올랐다.

광주에서의 봉기가 무장한 계엄군에 의해 야수적으로 진압당한 그해 겨울은 몹시도 어수선하였다.

하지만 수연의 집 창가에서는 밤이면 바이올린의 활줄이 뽑아내는 우아한 선률이 주위의 어수선한 소음을 뚫고 은은히 울려나오군 하였다. 그것은 어린 수연이가 아버지앞에서 펼치는 소박한 《연주회》였다.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여 인차 세계명곡도 몇곡쯤 연주할수 있게 된 수연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련습하였다. 아버지가 선

정해주는 악보의 부호를 따라 그는 공상의 나래를 펼치며 미래의 생활을 꿈꾸었다.

소녀의 넋은 자유로이 날개짓 하는듯 했지만 사실 그 넋이 날으는 하늘은 아버지가 아름답게 채색한 작은 유리함 같은것이였다. 가끔 그 유리함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흠칫 놀랄 때도 있군 했으나 아버지는 안깐힘을 다해 딸의 놀란 가슴을 잠재워놓군 하였다.

어느날 밤이였다. 그날도 그의 집 창문에서는 바깥세상의 분위기에는 아랑곳없이 별들도 추위에 떠는 깊은 겨울밤 실련의 쓰라림을 안고 방랑의 길을 떠나는 사나이의 심정을 형상한 슈베르트의 《안녕히 주무십시오》의 애잔한 선률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이 노래를 연주할 때면 아버지는 두눈을 꾹 감은채 음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군 하였다.

그런데 사나이가 달빛어린 싸늘한 대지에 눈물을 떨구며 떠나는 순간의 감정이 울려나오려는 그때 쾅ㅡ쾅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

려왔다.

수연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달려나갔다. 밀랍으로 빚은것 같은 작고 통통한 손으로 재빨리 문을 열어젖히자 차거운 기운과 함께 승냥이의 울부짖음같은 눈보라소리가 쓸어들었다.

《이 집이 윤정수씨댁이 옳으냐?》

방안에서 흘러나간 불빛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검은 목도리를 둘러감은 한 녀인의 모습을 비쳐주었다. 어린 수연은 추위에 퍼렇게 얼어버린 녀인의 얼굴을 공포에 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때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며 방에서 나왔다. 녀인을 본 아버지의 얼굴은 금시 백지장처럼 되여버렸다. 잠시후 아버지는 어린 딸을 황황히 방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후려닫았다.

그러는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긴 수연은 문틈에 귀를 대고 두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몇마디 말이 오가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어성

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이였다.

《형님을 아예 잊어버린건 아니예요?》

녀인의 담담한 그 목소리에 사위는 물뿌린 듯 고요해졌다.

(나에게 큰아버지가 있었단 말인가?)

수연은 호기심을 안고 다음 말을 기다리였다.

녀인이 불쾌한 어조로 말을 이어갈 때 아버지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잠시후 아버지는 작심한듯 단호히 소리쳤다.

《난 그런 사람을 모르오. 나가시오!》

수연은 화들짝 놀라며 작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얼마후 문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스산한 겨울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아버지가 방안에 들어왔다. 몹시 흥분된 기색이였다. 수연은 금방 왔던 녀자가 누구냐고, 그가 누굴 찾는가고 물어보았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태연해보이려 애쓰며 《뭐, 그냥

술취한 녀자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아무말없이 수연의 앞을 지나쳐 갔다. 탁자우의 바이올린이 아버지의 옷자락에 걸려 땅바닥에 떨어졌다. 허리 잘룩하고 반질거리는 물건이 태질하며 울리는 괴이한 신음소리에 수연은 금시 가슴이 얼어붙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것 같았다.

예쁘장한 그 모양이 우리 수연이 같다며 두볼을 대이고 쓰다듬던 아버지가 아니였던가.

수연은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참후에야 수연을 향해 돌아선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근심말어라. 다 너를 위해서란다.》 하고 뜻모를 소리를 뇌이는것이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버지는 몹시 울적한 나날을 보내였다. 일에 시달리다 돌아오면 수연의 바이올린소리를 들으며 피로를 풀던 아버지였건만 차츰 거기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유일한 관객인 아버지의 무관심에 수연도

흥심을 잃어버렸고 바이올린은 벽장속에 틀어박혀 먼지만 들쓰게 되였다.

…

아버지는 한생 가슴에 깊이 품고 산 비밀을 털어놓았다.

《저승길에 오른 몸이 무얼 숨기겠니. 넌 그때 그 녀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그는 어린시절 나와 한마을에 살던 녀자였다. 그리고 한책상에 앉아 글을 배웠지.》

《그랬군요. 그런데 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추운 겨울밤에.》

수연은 정이 많은분이라고만 여겼던 아버지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난 잊을건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을 너는 다 리해 못할거다. 그날 밤 그는 우리에게 글을 가르친 옛 선생님을 나에게 상기시키더구나. 그 선생님은 바로 너의 큰아버지였단다.》

아버지는 딸에게 왜 가정의 래력을 숨기려

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불행한 력사가 비껴있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에게 형은 아버지나 다름없었다. 학비를 물지 못해 중학교를 중퇴한 형은 어느 기관구에 들어가 잔뼈가 굳기 전부터 험한 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그는 해방을 몇해 앞두고 고향에 돌아와 시골학교 선생이 되였다.

기관구에서 로동을 하던 시절 선배로동자들의 영향속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근로하는 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새세상을 동경해온 형은 학생들에게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목숨도 바쳐싸워야 한다고 력설하군 하였다.

이후 해방 그리고 전쟁이 이 나라 력사에 거대한 자취를 새기며 다가왔다. 전쟁시기 의용군에 탄원하여 인민군대를 따라간 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잔혹한 《빨갱이사냥》이 시작되였던것이다.

인민군대를 도와주었거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련루된 가족들이 입는 피해는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하루밤 자고나면 앞마을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또 하루밤 지내고나면 이웃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 어딘가로 끌려가군 하였다.

형이 인민군대를 따라갔으니 자기도 무사치 못하리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지체없이 멀리로 들구뛰였다. 단속에 걸리면 방랑하는 고아라고 우기였다.

그는 형의 존재자체에 대해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렇게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였다. 어느날 신문을 펼쳐들고 어떤 재판과 관련한 기사를 읽던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피고는 다름아닌 형의 제자이자 자기의 동창생이였던것이다.

기소내용은 기가 막혔다. 사람들앞에서 파쇼통치체제를 규탄하고 통일을 주장한것 등을 엄

중한 《리적활동》으로 몰아붙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할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날 그 녀인이 아버지앞에 나타났던것이다.

겨울밤의 문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인간에게 망각의 자유는 없는것이라고 알리는것 같았다. 이미 다 지나가버린것으로 여겼던 과거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것에 놀라고 화가 동한 아버지는 그를 쫓아버리고말았다. 그것은 어린 자식의 눈동자에 지울수 없는 영상을 남겨놓았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니? 아무래도 피줄은 잊을수 없어. 난 지금 형이 보고싶다. 형앞에 용서를 빌고싶어. 그리고 그 녀자에게도. 헌데 저승에 가서도 난 그들을 볼것 같지 못하구나.》

아버지의 눈귀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

운명의 희롱인듯 오늘 윤수연은 바로 그 녀인과 함께 《평양행》 기차를 타고있었다.

윤수연은 눈보라 사납던 겨울밤의 이야기며 아버지가 그 일로 하여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분은 림종시에 선생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싶다고 했답니다.》

무릎우에 놓인 녀인의 두손이 바르르 떨리고있었다.

이때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승무원》을 자칭하는 한패의 사나이들이 차칸안으로 우르르 쓸어들었다. 그들은 승객들과 수연이네를 향해 마치 구면지기나 만난듯이 유쾌한 덕담을 건네였다.

《할머니, 차표 봅시다. 옛날엔 이렇게 했지요? 핫 하.》

《어랍쇼. 이게 몇해만입니까? 우리 기차에 올라본지도 퍽 오랬지요?》

《그래, 죽기 전엔 임자네를 더 못 보는

가 했지.》

녀인도 백발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롱담을 받아주었다.

《원, 할머니두. 장수하시면 오늘처럼 좋은 날을 보게 된답니다.》

《승무원》들은 차칸의 분위기를 대번에 화락하게 만들며 앞으로 나갔다.

《할머니, 평양까지 무사히 다녀가십시오.》

《그래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구.》

윤수연에게는 어쩐지 녀인이 롱을 하는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철길이 북으로 련련히 이어지던 때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를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승무원》들이 차칸을 나설무렵 기적소리가 울리여왔다. 창밖으로 작은 간이역이 언뜻 다가들었다. 간이역사앞에서 놀던 아이들이 렬차를 향해 조그마한 두손을 흔들어보였다. 윤수연은 금시 어린시절 마을아이들과 함께 철길에 나와 노닐던 자기의 소녀시절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 시절 수연은 강정식이며 동네아이들과 나란히 레루우에 올라 오이씨같은 발을 아장아장 옮겨디디며 학교로 오가군 하였다.

문득 그 시절의 어느날 강정식과 별치않은 문제로 말다툼하던 일이 생각났다.

강정식의 건너편에 서서 아득한 지평선 멀리를 바라보던 수연은 차츰 서로 가까이 다가붙고있는 두줄기 레루를 가리켜보였다.

《저것 봐. 우리도 이제 저기에 가면 서로 만나게 될거야.》

그 말을 들은 강정식이 코방귀를 뀌였다.

《쳇, 허튼소리.》

《그게 왜 허튼소리야?》

《철길은 말야, 평행선이거던. 평행선은 영영 사귈수 없어.》

강정식은 학교에서 배운 유클리드기하학의 공리까지 들먹이며 뻐기듯 말하였다. 아직은 비유클리드기하학이란것도 있다는것을 알지 못

하던 시절이였다.

어린 수연에게는 강정식의 그 말이 못내 서운하게 들리였다.

《그러니까 우린 영영 만날수 없다는거니?! 하지만 저끝에까지 가느라면 언젠가는…》

그 말에서 수연의 동심을 읽은 강정식은 측은한 마음이 동한듯 빙긋 웃음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연, 어서 이 손을 잡아.》

수연은 영문을 모른채 강정식이 내민 손을 맞잡았다.

《네 말이 맞았어. 이렇게 하니까 평행선도 사귈수 있구나. 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말이야.》

총각의 말뜻을 깨닫는 순간 수연의 두눈은 신기한 발견이라도 한듯 반짝 빛을 뿌리였다.

그들은 기차가 올 시간이면 해별에 단 따스한 레루장에 귀를 대고 어딘가 미지의 먼곳으로부터 점점 가까이로 다가오는 차바퀴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달칵거리는 금속음이며 레루의 진동이 점차 크게 느껴질 때면 가슴은 느닷없이 세차게 설레이며 짜릿한 쾌감에 싸이군 하였다.

드디여 거대한 물체가 대지를 흔들며 다가올 때 장난군아이들은 자기의 손가락만큼 굵은 못을 하나씩 레루우에 올려놓고는 《와—》 하고 흩어져가군 하였다. 그리고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육중한 차바퀴와 레루사이를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군 하였다.

기차가 먼지바람을 남기고 지나쳐가면 아이들은 철길에 우르르 몰켜와 저마끔 철마의 발굽에 납작해진 못을 집어들고 좋아라고 떠들어대였다. 그러다 철길감시를 나온 사람에게 들키는 날에는 되게 졸경을 치르어야 하였다.

여하튼 그 시절 기차를 기다린다는것은 까닭없이 즐겁고 가슴설레이는 일이였다.

그런 인연때문인지 어른이 되여서도 기차소리만 들으면 어린시절의 그 기차가 또 어딘가 멀

리서 기쁨을 가득 싣고 달려올것만 같은 생각에 가슴이 설레이군 하였다.

윤수연은 자기에게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게 해준 꼬마들을 향해 다정히 손을 흔들어주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잠간사이에 시야를 스치며 멀어져갔다.

《그러니 그도 잊지 않고있었구만.》

녀인의 목소리가 상념을 깨치며 울려왔다.

사색어린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던 녀인은 《하긴 잊을수가 없지.》 하고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윤수연은 녀인의 기차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녀인과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을 밟으며 살아온 한세대의 력사가 그 작은 기차표에 얽혀있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시후 고개를 돌린 녀인은 수연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기라도 한듯 말하였다.

《사실 자네가 찾는 기차표는 우리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든걸세. 나에겐 생의 한 부분

처럼 소중한것이지. 그래서 남에게 보이고싶지 않았어.》

《그랬군요. 그럼 저를 다시 찾은 리유는 무엇입니까?》

녀인은 당연한 물음이라는듯 흔쾌히 대답해 주었다.

《<평양행> 기차가 떠난다는 소식때문이였어. 임잔 내 심정을 다 몰라. 난 한생 그 소식을 기다려 산 늙은일세.》

어제 밤 《평양행》 기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들떠있던 녀인은 자기를 찾아왔던 녀기자를 떠올리였다. 그를 만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기 인생의 비밀을 털어놓고싶었다.

녀인은 품속에서 색날은 손수건을 꺼내여 한겹두겹 조심히 풀어헤치였다. 그러자 그속에서 자그마한 기차표 하나가 나졌다. 어제 수연을 실망시켰던 옛 기차표였다.

《그 윤정수란 사람에게 형이 있었어. 그분

은 바로 나의 첫 스승이였지. 그리고 나에게 이 기차표를 준 사람이기도 했어.》

순간 수연의 가슴은 몹시 울렁이였다.

차바퀴소리는 달그락거리며 끊임없이 울리는데 녀인의 이야기는 아스란히 멀어져간 옛시절을 더듬으며 이어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연은 한 사나이의 형상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굳세고 소박한 로동자풍의 사나이였다.

그는 어린 학생들의 친근한 형이고 오빠였으며 생활의 길안내자이기도 하였다. 방과후면 그는 자주 학생들을 데리고 철길이 굽어보이는 학교 뒤산에 올라 씨름경기도 조직하고 이야기도 들려주군 하였다.

《예전에 려행을 다니는덴 마차이상 없었지. 스티븐슨이란이가 만든 증기기관차가 철길을 달릴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 괴물이니, 쇠말이니 하고 수군거렸단다. 철마란 소리지. 철마는 쇠로 만든 길만 있으면 칙칙폭폭 하며 그 어

디건 힘든줄 모르고 거침없이 달린단다.》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소년화부로 기관차를 타고 다니던 때의 이야기였다.

식민지의 소년이 열풍속에 달아오른 얼굴을 들어 바라본 산천은 나라잃은 겨레의 피눈물에 젖은 삼천리였고 백성의 원성이 그칠줄 모르는 삼천리였다.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꿈이 자라고있었다. 왜놈도 없고 착취도 압박도 없는 해방된 이 땅의 철길로 힘차게 달리는 행복의 철마에 대한 꿈이였다.

새별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꿈이야기에 온 정신이 팔려있던 아이들이 저저마다 소리쳤다.

《선생님, 우리도 그 철마를 타고 달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될가요?》

《그래, 머지않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과 너희들모두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단다. 그날이 오면 우리 함께 철

마를 타고 이 나라 금수강산을 실컷 달려보자꾸나.》

이때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어느 한 둔덕우로 우르르 몰려갔다. 기차가 산굽이를 돌아서는 모양이 바라보였다. 기차는 흰 연기를 뿜어올리며 다가오더니 어느 사이 그들의 시야를 벗어나 멀리로 사라져갔다.

기관차에서 울리는 기적소리가 온 산판에 메아리치고있었다. 그 메아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행복의 철마를 타고 해방된 이 땅의 방방곡곡을 달리게 될 자기들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다.

그후 여름방학이 끝난 어느날이였다.

선생님은 한 녀학생이 부안군에 사는 이모네 집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두어살우인데다 용모도 환하고 남달리 총명하여 각별히 총애하던 처녀였다. 그가 바로 한수연

이였다.

근심에 싸여 안절부절하던 선생님은 개학식을 마치자 곧 렬차에 몸을 실었다.

익산을 지나 김제에 도착한 선생님은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며 부안까지 수십리 먼길을 달려갔다.

한편 갑자기 앓아누운 이모의 시중을 들다 뒤늦게 길을 떠난 처녀도 김제쪽으로 부랴부랴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다행히도 두사람은 길가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였다.

깜짝 놀란 처녀의 손에서 보짐이 툴렁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이?!》

《널 기다렸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이렇게 내가 올수밖에.》

《그 먼길을 나때문에…》

미소가 어린 수연의 눈가에 이슬처럼 맑은 눈물이 찰랑이며 고여올랐다. 이날 함께 렬차

에 오른 그들은 차창으로 흐르는 산천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녀가 방학기간 이모의 집을 찾아 떠난것은 사실 기차를 타고 선생님이 들려주던 아름다운 산천을 자기 눈으로 보고싶어서였다. 처녀는 《호남금강》으로 불리우는 변산반도의 기묘한 바위와 산봉우리들이며 자기가 본 이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여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호남평야지요?》

처녀는 차창밖을 가리켜보였다. 끝없이 흐르는 무연한 벌판을 바라보는 그의 목소리는 환희에 젖어있었다.

《그래, 수십년이나 전국을 답사하고 <대동여지도>를 만들어낸 김정호가 여기를 지날 때면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는 땅이라며 무릎꿇고 절하군 했다더라.》

《아, 얼마나 아름다운 이 땅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뜨거운 한숨을 내쏟는 처녀를 이윽히 바라보던 선생님의 입에서 조용히 리상화의 시가 흘러나왔다.

선생님이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첫련을 읊어나가자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하는 처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구름뒤에서 반가웁다 웃는 종조리》,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마른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며 애틋한 심정이 담긴 시구들이 엇바뀌며 울리더니 두사람은 설음에 젖은 목소리로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였네》를 합창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철마의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가요?》

밤깊어 고향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달빛어린 동구길의 오리나무며 무성한 잎새 치렁치렁 드리운 능수버들사이를 나란히 거닐었다. 사나이의 후더운 체취가 느껴지는 손을 잡고 교교한

달빛속을 거니는 처녀의 가슴속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움터나고있었다.

마을어귀의 내가에서 수연과 헤여질 때 선생님은 느닷없이 《만일 내가 어딘가 멀리로 떠나면 수연이도 나를 찾아와주겠어?》 하는것이였다.

처녀에게는 그 말이 례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던 처녀에게는 지나간 날들에 보았던 사나이의 눈빛들이 되새겨졌다. 사춘기처녀의 마음을 당혹케 하던 류다른 눈빛이였다.

잠시 망설이던 수연은 얼결에 《선생님이 바라신다면…》 하고 대답하였다.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물으셨을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가.

후날에도 처녀는 자주 그 달밤을 떠올리군 하였다. 그러면 달빛아래 밝게 웃던 한 사나이

의 모습이 눈앞에 어리여왔다.

그 모습은 다만 글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바라보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의지하고싶어지는 억세고 정이 가는 청년의 모습이였다.

그후 꿈결에도 그리던 해방이 왔다.

북으로, 남으로 해방의 환희를 싣고 달리는 기차를 보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던 선생님은 어느날 학생들과 수학려행을 떠날것을 결심하였다. 서울, 경기도를 지나 평양, 신의주를 돌며 해방된 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실컷 구경해보자는 랑만적인 구상이였다.

학생들은 너무 좋아 손벽을 치며 깡충깡충 뛰였다. 학교 뒤산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가슴에 품고 자래워온 꿈이 금시 현실로 다가오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 꿈은 실현될수 없었다.

모두 설레이는 마음안고 역으로 몰려간 그날이였다. 역사안에 들어갔던 선생님은 마치

얼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근심어린 모습으로 모여온 학생들을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으로의 렬차운행이 중단되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였다.

선생님은 꽉 움켜쥔 두손을 쳐들어보이였다. 왜놈기관사가 던진 탄삽에 맞아 생겼다는 상처의 흔적이 력력한 손이였다. 그 손에 찍지 못한 기차표들이 한줌이나 들려있었다.

《선생님!》

어둠침침한 그림자가 가득 드리운 어린 학생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던 선생님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이루지 못한 소원이 깃든 기차표를 축축히 적시고있었다.

그때로부터 애국과 매국의 타협없는 싸움이 시작되였다.

도처에서 애국자들이 분렬의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비극을 가시기 위한 투쟁의 봉화를 거세

차게 지펴올리였다.

선생님은 자주 그 봉화가 타오르는 곳으로 떠나가군 하였다.

선생님이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의 작은 문을 열고 나서면 제자들은 손꼽아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군 하였다. 기다림속에 흘러간 날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수연은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련을 맞게 되였다.

이 시기 선생님은 의용군에 탄원해나섰다. 눈물젖은 기차표를 쥐였던 그 손을 마치 기발처럼 쳐들었던 선생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눈동자에 영원한 인생의 스승, 따르고싶은 인간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선생님과 제자들은 전선으로 이어진 철길에서 작별하였다.

《통일이 되면 우리 함께 삼천리강산을 실컷 달려보자.》

바래우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로 혼잡

을 이룬 역홈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손에 작은 마분지쪼박들을 하나씩 쥐여주었다. 제자들은 두눈을 슴벅이며 그것을 줌안에 꼭 틀어쥐였다. 나라가 분렬되던 해 그들을 울리였던 기차표였다.

울먹이는 제자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걸어오던 선생님의 발걸음은 한수연의 앞에서 멎어섰다. 처녀는 자기에게 향해진 그의 눈동자를 보았다. 수업시간이면 스스럼없이 마주보던 크고 유난히 맑은 눈동자, 제자들을 꿈의 세계에로 이끌며 별처럼 빛나던 눈동자였다.

선생님은 수연을 역뒤의 조용한 곳으로 이끌어갔다.

《수연이.》

이렇게 불러놓고는 다음 말을 잇지 못한채 바재이기만 하였다. 처녀는 그 눈동자에 리별의 서운함과 사나이의 애끓는 심정이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을 보았다.

《난 꼭 돌아와. 기다려주겠어?》

능수버들 휘늘어진 마을의 내가에서 느낀것과 같은 홍분이 한수연의 온몸을 휩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사랑의 기쁨과 리별의 아픔을 한꺼번에 체험해야 하는 처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담뿍 고여 찰랑이였다.

《왜 울어? 아주 가는게 아니지 않아. 헤여진다는건 다시 만나게 된다는거야.》

선생님은 헌헌히 웃음지으며 말했다.

처녀의 그늘진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던 선생님은 언젠가 학교 뒤산에서 있은 일을 다시 상기시키였다.

그때 선생님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세상에서 행복의 철마타고 마음껏 달려보자고 이야기했었다. 그후 다가온 해방이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선생님은 온 삼천리강산을 주름잡으며 달리는 철마의 꿈을 이루자면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그래서 나는 교문을 나섰고 오늘은 또 이 길을 떠나는거다.》

수연은 고개를 쳐들었다. 어제는 자기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앞날의 꿈을 심어주던 선생님이 오늘은 삶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인생의 교단우에 아득히 높이 서있는것을 보았다.

《수연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마중해주겠어?》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사나이는 환희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처녀의 부드러운 몸을 숨이 막히도록 끌어안았다.

이윽고 기적소리 울리고 기차에 껑충 뛰여올라 손을 젓던 사나이의 모습이 수연의 눈동자에 사진처럼 또렷이 새겨졌다.

《모두 잘 있거라—》

한수연은 동무들과 함께 기차를 따라 달리며 몸성히 돌아오라고 목청껏 소리쳤다.

기차가 자그마한 점으로 사라져갈 때 한수연은 문득 자기 손에 쥐여져있는 기차표를 보았

다. 활짝 손을 펴니 또박또박 새겨쓴 사나이의 글씨가 또렷이 비껴들었다.

《수연이, 기다려.》

그것은 한 청년이 남긴 인생의 언약이였다.

처녀는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돌아와요, 기다리겠어요.》

작별의 시각에 울린 그 목소리들은 한수연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문자처럼 깊이 새겨졌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 청춘의 언약이 새겨진 기차표는 세월이 갈수록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새겨줄뿐이였다.

《아주 가는게 아니지 않아. 헤여진다는건 다시 만나게 된다는거야.》

기차표를 보느라면 그가 멀리에서 안타까이 자기를 부르는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고 그러면 불쑥 그를 찾아 떠나고싶은 충동을 느끼

군 하였다.

분렬의 력사가 지속되고 통일의 길이 묘연해질수록 한수연에게는 철마의 꿈을 위해 통일의 길에 나섰다던 선생님의 이야기가 사무쳐오군 하였다. 그러자 선생님이 남겨준 기차표가 다만 사랑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를 바쳐 철마의 꿈을 이루어가라는 겨레의 당부로 마음속에 무겁게 들어앉는것이였다.

그 당부를 안고 오로지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섰고 시련많은 인생길을 꿋꿋이 걸어온 한 수연이였다.

…

옛 기차표에 그처럼 신성한 가치가 깃들어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던 윤수연이였다.

녀인은 그에게 눈보라치는 그 겨울밤 윤정수라는 사람을 찾아갔던 리유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량심수가족들과 함께 교도소들에서 벌어지는 야수적인 사상전향공작의 실상을 폭로하며 렬

차를 타고 다니던 어느날 그는 우연히 옛 동창생의 집을 알게 되였었다. 쌓인 회포도 나누고 옛 기차표를 꺼내보며 그리운 스승의 이야기도 나누어보자고 찾아갔던 걸음이였다.

《그에게도 기차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찾아갔었지.》

녀인은 시들히 웃어보였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윤수연은 녀인의 눈길을 마주보기가 쑥스러워졌다.

나에게 과연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흐리지 않는 저 눈동자를 마주볼 체면이 있는가. 이 녀인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꿈을 안고 생을 바쳐갈 때 나는 무엇을 했던가.

자기도 대학시절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동료들과 휩쓸려다니기도 하였지만 한갖 시류를 따르는 젊음의 혈기일뿐이였다. …

어제 저녁 녀인의 집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마치 모든것을 다 꿰뚫어보고있었던 것처럼 《누가 당신에게 그런걸 보여주겠소?》

하고 말했었다.

얼마나 모욕적이였던가. 하지만 얼마나 옳은 비난이였는가.

또 다른 수연의 삶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있었다.

철마의 꿈을 소중히 품고 한생을 바친 저 녀인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있어 오늘 통일은 현실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윤수연은 아까부터 들뜬 마음으로 손에 들고있던 자기의 《평양행》 기차표를 슬그머니 가방속에 넣었다.

가슴이 답답해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강구쪽으로 걸어나갔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이후 인터네트에 올랐던 시구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울리고있었다.

…

꽁꽁 언땅을 손갈구리로 녹이면서
통일의 길을 내기 위해 피멍이 지도록

다져왔던
통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펑펑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외세에 멱살잡혀 빼앗긴 삶터
사막길을 헤쳐온 민중이
이제 통일의 주인입니다
…

한 소녀의 모습이 언뜻 차창을 스쳐갔다. 푸른 야산을 배경으로 홀로 선 소녀의 모습이 잠간사이에 아득히 멀어져가는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연에게는 마치도 그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차를 기다리며 거기에 서있었던 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러자 고요한 공간속에 간간이 울려오는 차바퀴소리마저 아득한 옛시절 이 철길우에 울리던 누군가의 속삭임소리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에 끌려 상상의 심연속을 더듬어가는 수연의 눈앞에는 어린 가슴들에 아름다

운 꿈을 심어주던 한 사나이며 인생의 험난한 려정을 그 꿈 하나를 안고 걸어온 녀인의 모습이 고결한 인생의 모습으로 눈앞에 어려왔다.

잠시후 《승무원》들이 저쪽 차칸에서부터 우르르 몰려나오며 흥분에 들떠 웨쳐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렬차는 곧 <평양>에 들어서게 됩니다.》

려객들은 삽시에 바람맞은 수풀처럼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모자를 공중으로 올려던지는 소년들, 두주먹을 흔들며 환성을 터뜨리는 젊은이들…

날랜 사람들은 벌써 등에 진 려행용배낭을 추썩이며 승강구문을 나서기 시작하였다.

수연도 삽시에 려객들속으로 퍼져가는 분위기에 휩싸인채 녀인을 찾아 차칸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일때문인지 녀인의 주위에는 또

술한 사람들이 모여서있는것이였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무어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녀인은 요지부동으로 앉아 고집스레 팔을 내두르고있었다.

《왜 그러세요?》

윤수연은 한 《승무원》청년에게 물었다.

《글쎄 이 할머니가 못 내리겠다는군요. 여기가 종착역이라는데도 막무가냅니다. 아까는 내리겠다고 소동을 일으키더니.》

녀인은 짐을 꼭 그러안으며 노기띤 목소리로 고집스럽게 뇌이였다.

《글쎄 내리긴 왜 내리냐 말이야. 여기가 어디 평양이냐? 평양까진 아직 멀었어. 난 더 가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아연해진 눈으로 서로서로 마주보았다.

두눈을 깜박이며 녀인을 찬찬히 바라보던 안경쟁이 젊은이가 손세를 써가며 설명하였다.

《할머니가 또 이러시네. 오늘은 그냥 행사

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음번엔 정말 평양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그땐 내가 직접 모셔다드릴게요.》

그 말도 통하지 않게 되자 젊은이는 방법이 없다는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연이만은 녀인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착오가 아니였다. 북행길을 달리고싶어하는 녀인의 간절한 념원이 현실과 상상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던것이다.

《어머니.》

윤수연은 녀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를 마주보는 늙은이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눈가에 진득한 눈물이 핑 고여올랐다.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해? 난 가야 해. 가야 한다니까.》

그 뜻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의아한 눈길로 서로 마주볼뿐이였다.

늙은이의 두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얼굴의 깊은 주름살을 타고 메마른 손등우에 뚝뚝 떨어져내렸다.

《난 가야 해.》

그 모습을 보는 수연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윤수연은 기차가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것이 마치 자기의 죄이기나 한듯 주눅든 목소리로 뇌이였다.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선 녀인은 허탈에 싸인듯 스적스적 출입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수연도 그뒤를 따라 걸었다.

역홈에 내려서니 려객들과 그들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왁작 떠들며 어우러져 돌아가는 모양이 눈에 비껴들었다. 가설무대우에서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밑에서는 남녀로소가 어깨춤을 추고있었다.

이때 철길을 따라 앞으로 나가던 몇몇 젊은

이들이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정지》라는 위혁적인 글을 새긴 표말이 그 앞에 서있었다. 축제의 분위기는 순간 아쉬움으로 바뀌였다. 그뒤에 세워진 리정표에 평양까지의 거리가 새겨진것이 보였다. 불과 몇시간이면 가닿을 거리건만 수십년을 오도가도 못하는 현실이 다시금 가슴을 쳤다.

갑자기 《이건 아니야!》 하고 분연히 웨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였다. 한 젊은이가 빠른 걸음으로 기관차를 향해 다가서고있었다. 그러더니 뜨겁게 달아오른 기관차의 차벽을 향해 프랑카드를 든 두 손을 엇가로 쭉 내뻗치였다. 힘차게 휘갈겨쓴 글발이 사람들의 시야에 확 비껴들었다.

《철마는 달리고싶다!》

오랜 세월 분렬의 이 지점에서 통일을 목터지게 부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타는 갈망이 어린 글발이였다.

잠시후 윤수연은 녀인에게로 다가가 옛시절

그에게 기차표를 준 사람이 자기의 큰아버지였으며 자기가 사나운 어느 겨울밤 녀인을 내쫓던 그 사람의 딸이였다는 사실을 터놓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순간에 조그맣게 졸아든것처럼 보이는 녀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늘게 떨고있는 백발의 머리채를 보는 순간 이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그는 걸음을 재촉해가며 녀인의 이름을 불렀다.

이 순간 수연은 자기와 같은 녀인의 그 이름속에 어떤 비상한 의미가 깃든것처럼 여겨졌다.

옛사랑이 기차표를 안겨주며 불렀던 이름, 그 기차표를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통일을 마중해 달려온 길들마다에서 정답게 불리워지던 그 이름이였다.

자기의 이름도 녀인의 이름처럼 그렇게 불리워진적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차츰 통일

이 자기의 행복과는 먼일로 여겨질 때 그리고 그 길이 기약할수 없는 먼길로만 여겨질 때 그 부름소리들은 점점 멀리로 사라져갔고 아름다운 추억의 나날은 기억의 아득한 저편에서 아물거리기 시작하였다.

끊어진 철길앞에 선 녀인의 모습을 보는 윤수연의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며 대학시절 뜻을 함께 했던 동료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백발녀인과 겨레의 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쳐온 이들의 피가 슴배인 길을 자기의 인생길로 이어가는 고결한 모습들이였다.

통일의 궤도에 인생을 싣고 달려온 수많은 《승객》들처럼 자신도 철마의 꿈을 위해 한생을 바쳐가리라는 결심이 수연의 가슴속에 로반우의 침목처럼 무겁게 들어앉고있었다.

윤수연은 다시 녀인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기적소리가 울리였다. 기적소리는 그의 목소리를 싣고 철마의 꿈이 아득히 뻗어간 지평선 멀리로 퍼져갔다.

× ×

이날 밤 윤수연은 남편에게 서울에서 《평양》까지 달리는 렬차에서 있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정식은 안해의 이야기에 완전히 심취되여있었다. 하지만 《철마의 꿈》을 다시 쓰겠다는 안해의 말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고개를 흔들며 히죽이 웃어보이였다.

수연이 색날은 손수건에 정히 싼 옛 기차표를 꺼내보였을 때에야 남편은 안해의 그 마음을 리해할수 있었다. 이제 그것은 수연의것이기도 했고 자신의것이기도 했다. 둘은 오랜만에 다정히 마주앉아 《철마의 꿈》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수연은 책의 첫장 제목을 《꿈을 새긴 기차표》로 달았다.

【수필】

통일된 나라를 보았습니까?

김 석 문

나는 요즘 누구에게라 없이 묻고싶다. 친한 동무들을 만나도, 출근길에서 낯을 익힌 사람일지라도 붙들고 물어보고싶다.

《통일된 나라를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이상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기웃거릴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말해주리라.

《나는 통일된 나라를 보았다!》라고…

얼마전 나는 대성황리에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였다. 경기장의 바닥에 흐르던 대형통일기와 황황히 어둠을 사르던 봉화대의 불길 그리고 은하수의

별무리인양 밤하늘에 빛나던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채로운 불장식이며 경기장을 진감하던 군중의 환호성, 현란한 조명빛속에 감탄을 자아내던 집단체조의 매 장면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은것은 《겨레의 메아리》장이였다.

…

경기장바닥은 어느새 넘실넘실 구름이 흐르는 밤하늘이 되고 뽀얀 운무속에 흰종이배처럼 생긴 쪼각달이 둥실둥실 떠가는데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인가, 한쌍의 처녀와 총각이 등불아래 속삭이듯 노래를 부른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

참으로 감명깊은 장면이였다.

어린시절 나는 유별나게도 밤하늘의 《쪽배》를 좋아하였다. 어느 겨울날 추운 밤에 할머니가 배워준 《반월가》를 부르며 창밖으로 떠가는 반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추운 밤에 달토끼는 어데로 갈가? 그렇게 먼데로 가면 래일은 못 보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에 한참이고 성에 불린 창문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밝은 달과 저쪽의 어두운 밤하늘구석을 근심스레 올려다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쪽배》가 사라질가 걱정하는 나에게 할머니는 달토끼가 내 꿈을 싣고 은하수를 건너 꿈나라로 갔다가 새별등대를 찾아 다시 온다고 나를 달래주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내 이마에 따스한 손바닥을 올려놓고는 이윽토록 창밖을 내다보시는것이였다.

그때에는 어린 마음에 다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이나마 할머니의 그 심정을 리해할수 있을것만 같다.

아마도 그때 할머니는 먼저 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했으리라…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시인이였다.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집을 읽어가느라면 인자하고 다심하고 또 고결한 성정을 지닌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할아버지는 고향이 남녘이여서 밤이면 하늘에 떠가는 달을 보면서 두고 온 고향의 부모형제들에 대한 정에 북받쳐 그들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지어부르군 했다고 말해주었다.

지금도 조용히 눈을 감으면 열어젖힌 창문곁에 우두커니 홀로 서서 가로등불빛을 받아 철색으로 짙어진 얼굴로 불어오는 밤바람에 흰머리 날리시며 쏟아지는 달빛과 고즈넉한 정적속에 시를 읊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상상화처럼 떠오른다.

통일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어머님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밤하늘의 달이 되여
밤마다 내 창가를 지켜보고계시나

활짝 핀 우리 살림 대견하여 웃으시다
흥에 겨워 잠시라도 남녘을 잊을세라
흰구름 사이사이로 마음쓰고계시나

…

할아버지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바로 저 달빛아래서 먼곳으로 떠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계실 두고 온 고향의 어머니를 그렸고 할머니는 저 달을 보며 그토록 통일을 소원했지만 끝내 통일의 날을 못 보고 먼저 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였다.

그렇다, 저 달만은 가지가지 만단사연을 다 알고있으리라. 하지만 어째서 저 달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묵묵부답으로 쉬임없이 어디론가

사라지려고만 하는가.

애써 그 물음에 대답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일이기때문이다.

외세에 의해 민족의 혈맥이 끊어져 장장 70여년, 누구나 어머니처럼 그 부름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나의 조국은 그 기나긴 세월을 지구상의 단 하나뿐인 분렬된 나라, 갈라진 민족이라는 뼈아픈 상처속에 반세기이상이나 고통받아왔다. 나라가 갈라졌는데 과연 그 누구인들 마음속에 상처가 안 생겼으랴…

두고 온 고향과 갈라진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 어서 한시바삐 달려가 얼싸안고싶은 갈망…

하지만 겨레의 그 소박한 꿈은 군사분계선의 콩크리트장벽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나가고 멍울진 그 상처는 누구나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 피를 토하는 아픔을 자아냈다.

이런 아픔이 장장 70여년임에야 저 달인들 어찌 무심히 볼수 있으랴.

밤하늘의 달마저 자기의 그림자가 저 군사분계선, 분렬의 지점에서 둘로 찢기지 않을가 걱정되여 서둘러 재촉하며 어디론가 가는것은 아닌지…

과연 통일, 통일은 이 땅에 언제면 오나!

정말 많고많은 생각을 자아내는 공연이였다.

어느덧 경기장안의 구름바다를 헤치던 흰 쪽배는 사라지고 《통일장》이 펼쳐졌다.

통일에 대한 노래가 울려퍼지자 순간 경기장안의 열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였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합창하였다. 참관자들도 그리고 해외동포들과 남녘동포들도 한 목소리, 한음색으로 노래를 따라불렀다. 정녕 온 경기장을, 아니 온 우주공간을 들었다놓는 그 함성이야말로 통일을 부르는 민족의 대합창, 홀로 간직하고 남몰래 속삭여보던 소중한 꿈들을 하나로 터쳐부르는 우렁찬 겨레의 메아리였다.

북남수뇌분들이 함께 뜨거운 악수를 나누시

는 장면이 펼쳐지자 온 관람석은 그야말로 폭풍같은 환호의 함성으로 진감했다. 격정의 바다, 환희의 대하였다.

사방에서 터져오르는 환호성에 나의 심장도 쿵쿵 방망이질을 했다. 하지만 나의 흥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조선대통령과 마주잡으신 손을 높이 추켜드실 때 아, 거기서 나는 통일된 삼천리를 보았다.

나는 비로소 확신하였다. 통일은 바로 이렇게 온다. 통일은 한목소리된 겨레의 저 웨침처럼 격정에 넘쳐, 서로서로 맞잡고 높이 추켜든 두손처럼 환희에 넘쳐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닥쳐온다.

천지의 푸른 물에 물들여진 통일의 화폭, 백두산이 굽어본 통일!

터치지 않고서는 진정할수 없는 이 격정앞에서 나의 심장은 스스로 이렇게 토로한다.

《나는 통일된 나라를 보았다!》 …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로 된 강토우에서 통일강국의 자랑찬 력사를 민족사에 장엄하게 기록하게 될것이다.

세계작가일화

《묘지에 무슨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마크 트웨인(미국의 작가)이 농촌의 어느 한 마을에서 살고있을 때였다.

어느날 그 마을의 유지들이 찾아와서 묘지에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니 얼마간의 돈을 기부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머리를 저으며 말하였다.

《모처럼 말씀하시는데 안되였습니다만 저는 한푼도 낼수 없습니다. 도대체 묘지에 무슨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묘지안에 있는 사람은 나올수 없는것이요, 묘지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안에 들어가고싶어하지 않을텐데요. 울타리는 지나친것이니 다시 잘 생각해보십시오.》

【수필】

하얀 설기떡

김 영 자(재중동포)

나는 하얀 설기를 무척 좋아한다.

오늘도 나는 설기떡소리에 그만 그 옛날 시루떡을 눈앞에 그려보게 되였다. 하얀 머리수건을 쓰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함박꽃같은 엄마의 고운 얼굴이 떠오르는중에 고향집 가마목에서 엄마가 큰 쇠가마뚜껑(솥뚜껑)을 연다. 그러면 피여오르는 흰 안개속을 헤치고 둥그런 가마안에선 반듯한 흰설기가 어린 나를 보고 활짝 웃어준다.

와!— 보기만 해도 입이 함박만 해지고 군침이 꼴깍 넘어간다. …

나는 혼자 시무룩이 웃었다. …

사실 우리 민족 음식문화엔 설명절이나 생일날은 물론 자식의 돌잔치때에도 상차림에서 빠질수 없는것이 바로 백설기이다.

하얀 설기의 매력은 하얀 깨끗함이다. 하얀색은 백의동포의 깨끗한 마음의 상징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깨끗함을 즐겼고 흰옷을 즐겨 입었기에 《흰옷입은 사람》, 《백의동포》라 부르고있지 않았던가? 흰색은 소박하면서도 깨끗하다.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쌀도 내고 떡방아도 찧어서 그것으로 백설기를 빚어 생일상도 차리고 아가의 백일잔치도 치렀다 한다. 실로 이국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민족의 령혼은 잃지 않았었다. 이렇듯 백설기는 아가의 깨끗한 마음을 표시하였고 또 우리 민족 후대들이 티없이 밝게 자라라는 뜻이 담겨있지 않았을가?

하얀 설기떡의 매력은 순수하고 소박함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사를 하였을 때, 영업집을 갓 개업하였을 때 아래웃집에 처음 보내

는 음식이 바로 흰 설기떡이였다고 한다. 아마도 아래웃집사이에 화목하게 보내고 또 함께 잘살아보자는 순수한 감정과 사랑, 소박한 정이 흘러넘치는 표현이라 본다. 나눔은 정이고 나눔은 사랑이다. 우리모두에게 이런 나눔이

유모아

고을원의 판결

옛날 한 고을에 원이 새로 부임되여 내려왔는데 그는 무식한데다가 사리도 밝지 못하여 거의 천치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사리에 밝은 안해가 있어 그는 무슨 송사가 제기되면 일체 안해에게 물어보고 그가 시키는대로 정사를 처리해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관가에서 부리는 소가 짐을 끌고 돌다리를 건느다가 그만 돌짬에 끼워 넘어지는통에 다리가 부러져 더는 부릴수 없게 되였다.

아전이 원에게 이 사실을 아뢰자 원은 안해에게 그 사연을 말하고 방도를 들었다.

원은 다음날 아침 관청에 아전들을 모이게 하고 부인이 대준대로 엄숙히 령을 내리였다.

있다면 이 세상은 정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락원일것이다.

하얀 설기의 매력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정신을 보여주고있다. 알알의 흰쌀은 포실포실한 흰 떡가루로, 눈같이 흰 떡가루가 또 찜통(시

《고기는 관청에 올리고 가죽은 공방에 보내고 뼈는 군기용으로 쓰라.》

관리들은 령을 듣고나서 모두들 원이 아주 현명하다고 수군거리며 이제는 고을의 정사가 잘 처리되는것 같다고 좋아들 하였다.

며칠후 한 아전이 관청부근의 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벼랑에서 굴러 그만 다리가 부러지게 되였다. 원이 들어보니 소다리가 부러진것과 비슷한 일인지라 안해에게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전번과 같이 엄하게 령하였다.

《고기는 관청에 올리고 가죽은 공방에 보내고 뼈는 군기용으로 쓰라.》

아전들은 령을 듣고서 아연실색하여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 소문이 퍼져 원이 천치라는것이 알려지게 되자 원은 그만에야 고을에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였다.

루)안에선 높은 온도의 안개같은 흰 김의 시련을 이겨내고 끈질기게 뭉쳐져 달콤한 하얀 설기로 변한다. 두들겨맞지 않으면 찰떡이 아닌것처럼 타래쳐오르는 흰 김의 시련을 이겨내도 뭉쳐지지 않았다면 하얀 설기떡이 아니였을것이다.

뭉쳐야 힘이 되고 뭉쳐야 승리한다. 백의민족의 하얀 넋도 뭉치라고 웨치지 않는가? 우리 민족의 단합정신을 말해주는 하얀 설기떡은 역시 민족의 자랑으로 되기에 손색없다고 느껴진다.

나는 이런 하얀 설기떡의 정신을 찬미하고 싶다.

하얀 안개 피여올라 하얀 설기 되였구나
소박하고 순결한 네 향기에 취하누나
래일도 찬란하여라 하얀 넋의 빛이여!

【야담】

김천일의 안해

창의사 김천일에게는 어느 집 딸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집온 첫날부터 아무 하는 일없이 낮잠만 자는 안해가 있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보다못해 이렇게 타일렀다.

《얘야, 네가 마음씨는 무던하다만 안해의 도리를 모르는것이 큰 흠이다. 대개 안해에게는 안해로서 해야 할 소임이 있는 법이다. 너는 이미 출가한 몸인만큼 집을 돌보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낮잠만 잔단 말이냐?》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하였다.

《설사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자고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맨손바닥으로야 어떻게 살림을 꾸린단 말씀이오이까?》

시아버지는 답답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여 그 자리에서 쌀 30섬과 하인 네댓명에 소 두어짝을 주며 말했다.

《이만하면 살림을 넉넉히 꾸려나갈만 하냐?》

《넉넉하오이다.》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곧 하인들을 불러다놓고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좇아야겠다. 이 소에다 곡식을 싣고 무주의 어느 한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나무를 찍어 집을 지어라. 그리고 이 쌀을 농량으로 화전을 부지런히 일구어서 매해 소출을 계산하여 내게 알려다오. 그러되 겉곡은 찧어서 쌀로 저축하도록 해라. 매해 꼭꼭 그렇게 해야 한다.》

하인들은 부인의 분부를 받고 무주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며칠이 지나 안해는 천일에게 《사나이의 수중에는 쌀과 돈이 꼭 있어야 합니다. 손이 비면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왜 이에 대해 전

혀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부모를 모시고있는 사람으로 먹고 입는것을 모두 부모에게 의탁하고있는 처지에 쌀과 돈을 어디서 변통해낸단 말이요?》

천일의 대답이였다.

《제 듣기에 이 마을 리생이라는 사람네 집에 재산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둑을 즐긴다 합니다. 그러니 한번 그 집에 가서 1 000섬 로적가리 하나를 걸고 내기바둑을 한판 두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야 바둑을 잘 두기로 세상에 소문이 짜한데 나같이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어찌 감히 엄두나 낼수 있겠소?》

《그건 걱정할게 없습니다. 바둑판이나 가져오십시오.》

안해는 천일이 바둑판을 가져오자 그와 마주앉아 바둑을 두면서 묘한 수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천일 역시 뛰여난 사람인지라 반

나절동안 바둑을 두는새에 그 수들을 환히 꿰뚫게 되였다.

《이만하면 얼마든지 바둑을 둘만 합니다. 군자께서는 반드시 세판을 두어 두판을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가르도록 하십시오. 첫판은 우정 져주고 둘째, 셋째 판엔 아슬아슬하게 이기십시오. 로적가리를 받아놓으시면 그담엔 그가 꼭 다시 승부를 겨루자고 할것입니다. 그때에는 기막히게 묘한 수를 써서 그가 손을 들고 나앉게 하십시오.》

천일은 안해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이튿날 그 집을 찾아갔다. 내기바둑을 두자고 청하니 리생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자네와 지금껏 한마을에서 살아왔네만 내 아직 자네가 바둑을 잘 둔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네. 그런데 이제 불쑥 내기바둑을 두자니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나? 헌데 자넨 내 적수가 못되니 두어보나마날세.》

《아, 바둑을 두어본 다음에야 누구의 수가

높은지 낮은지 알게 아니겠나? 두어보지도 않고 흰소리치지 말게.》

천일은 재삼 끈덕지게 졸랐다.

《정 그렇다면 우리 한번 두어봅세. 그런데 나는 평생 내기바둑이 아니고는 두어본적이 없네. 무엇을 걸고 하자나?》

《자네네 집에 1 000섬이나 되는 로적가리가 서너개 있으니 그걸 하나 거는게 좋겠네.》

《난 그것으로 내기를 걸겠네만 자넨 뭘 가지고 내기하겠나?》

《나도 1 000섬을 걸겠네.》

《자네가 부모님들을 모시고있는 형편에 그렇게 많은 곡식을 어디서 변통하겠다구.》

《그건 승부가 정해진 다음에나 론할 일일세. 내가 내기에서 졌다면야 1 000섬이라는게 무슨 대수겠소?》

그러자 리생은 마지못해 바둑판에 나앉았다.

세판을 두어 두판을 이기는 사람이 다 이기는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처음에 천일은 일부

러 한판 져주었다.

그러자 리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내 뭐라든가? 자네는 내 적수가 못 된다고 말하지 않던가?》

그러자 천일은 《아직 두판씩이나 남아있질 않나?》라고 하며 다시 다음 판을 두기 시작했다.

리생은 매우 이상하게 여기면서 두번째 판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련속 두판을 지게 되는 리생은 놀라와하며 말했다.

《허 참, 거 이상한 일이군. 세상에 이런 법도 있단 말인가?》

리생은 하는수없이 약속한대로 1 000섬을 주어 곧 그의 집으로 실어보냈다. 그리고 천일에게 다시 한판만 더 두어보자고 하였다. 천일은 쾌히 승낙하고 다시 바둑판에 나앉았다. 이번에는 비로소 귀신같이 신묘한 진짜수를 썼다. 그리하여 리생의 형세는 이미 기울어져 바둑쪽

을 더 놓을수가 없게 되였다. 천일은 웃으면서 바둑판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안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 안해는 《저는 그러리라고 짐작하고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이 숱한 곡식을 앞으로 어디에 쓰려오?》

《군자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중에 관혼상제를 제대로 치를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과 가난하여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도 적당히 나누어주시고 가깝든멀든, 귀하든천하든 관계없이 뛰여난 사람이라면 그들과 서로 사귀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그들을 청해오면 술과 음식은 제가 맡아 준비하겠습니다.》

천일은 안해의 말대로 하였다.

어느날 천일의 안해는 시아버지에게 또 한가지 청을 드렸다.

《제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집앞의 닷새갈이밭을 부치게 해주십시오.》

시아버지는 순순히 허락하였다. 천일의 안해

는 이때부터 밭을 갈아 박씨를 심어 박이 익으면 기다렸다가 한말들이 박에다가 옻칠을 하여 쌓아두게 하였다. 이렇게 몇해를 하고보니 다섯칸 고간이 옻칠한 바가지로 꽉 들어차게 되였다.

안해는 또 야장쟁이를 시켜 옻칠한 바가지와 꼭같게 쇠바가지를 만들게 하여 창고에 같이 쌓아두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까닭을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임진년 왜적들이 침입하자 안해는 천일에게 말했다.

《제가 평시에 군자께 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호걸남아들과 친교를 맺게 한것은 이런 때에 그들의 힘을 얻자는것이였습니다.

군자께서 의병을 일으키시면 시부모님들이 무주땅에 피난가서 안전하게 계실수 있도록 제가 이미 집도 식량도 장만하여놓았으니 군자께서는 조금도 념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군량을 마련하여 그것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은 안해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드디여 천일이 의병을 일으키자 그의 마을에서뿐아니라 마을밖의 여기저기에서 평시에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아오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열흘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5 000명의 정예한 군사를 얻게 되였다.

천일은 군사들에게 각기 옻칠한 바가지를 차고 싸움을 하게 하고는 돌아갈 때 쇠바가지를 길가에 내버리고 가게 하였다. 왜놈군사들이 그걸 보고는 저저마다 겁에 질려서 말했다.

《이 군사들이 매 사람마다 이렇게 무거운 쇠바가지를 차고서도 나는듯이 달리니 그 용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로구나.》

왜놈군사들은 천일의 군사와 만나지 않도록 서로 경계를 하면서 감히 범접할념을 못했다. 이때문에 왜군은 천일의 군사만 보면 싸울 생각도 못하고 산산이 흩어져버렸다.

김천일이 큰 공을 많이 세울수 있은데는 실로 그 안해의 도움이 크게 깃들어있었다.

【작가소개】

17세기의 애국시인 정두경

리 명 희

중세시기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작가들가운데는 정두경(1597—1673)도 있다. 량반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슬기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군 하였다.

14살때부터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여러차례의 시험에서 늘 높은 성적을 받아 이름을 크게 떨쳤다. 이로 하여 당시 문장에서 뛰여나 이름을 떨치던 초사 강일광과 김류와 벗으로 사귀게 되였으며 그들과 함께 종사에 뽑히였는데 그 일에 막힘이 없고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하여 사람들의 경탄을 받았다. 그는 1629년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그가 봉건관료로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 나라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였던 때였다. 당시 사대적인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과 당쟁으로 말미암아 아직 임진조국전쟁의 피해를 가시지 못한채 나라의 국력은 쇠퇴해지고있었으며 이런 기회를 타서 외래침략자들은 우리 나라를 침범할 기회만을 엿보고있었다. 정두경은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상소문을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은 나라가 병자호란의 참화를 당하게 되고 봉건통치배들은 침략자의 강도적요구에 굴복하였다. 이에 분격한 정두경은 벼슬을 버리고 주로 창작에 몰두하면서 자기의 애국적지향과 신조를 그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립장은 시창작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정두경의 창작에서 기본으로 된것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의 자랑스러운 위훈과 나라의 변방을 튼튼히 지키며 군력을 강화할데 대한 조국방위의 지향을 노래한 시들의 창작이다.

그의 시작품들에는 《변방의 노래》, 《종군의 노래》, 《백마타고 출전하며》 등과 같이 북방외적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반영한 작품들과 《절도사 김준료와 작별하며》, 《함경도 관찰사 리시를 보내며》, 《일본 가는 사람에게》 등과 같이 나라의 국경방비를 강화할데 대한 지향을 반영한 작품들, 왜적들과 북방오랑캐들과의 싸움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애국정신을 보여주는 《곽진경장군의 대은당노래》, 《김응하장군만사》, 《북병사박당을 추모하여》, 《동해의 용감한 녀인》 등을 비롯한 반침략투쟁의 다양한 서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수많이 들어있다.

【우화】

쪽배와 수레

윤 학 명

어느날 수레 하나가 동뚝길을 가고있었습니다. 솔미산이라는 곳으로 목재감을 구하러 가는 길이였습니다.

아주 질기고 좋은 목재감이 그 산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레는 목재를 얻어다 올가을에는 멋진 수레채를 만들고싶었던것입니다.

길은 아주 멀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수레는 삐걱삐걱 힘들게 길을 갔습니다.

그러는데 문득 동뚝아래 푸른 물길을 따라 쪽배가 나타났습니다.

수레는 옆을 지나치는 쪽배에게 말을 걸었

습니다.

《여보게 쪽배, 자네 어딜 가는 길인가?》

《나 말인가? 저 솔미산에 목재를 얻으러 가는 길일세.》

《아니, 그럼 함께 가세나. 나도 거길 가는 길일세.》

쪽배는 헌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 마침이구려. 우리 동무해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되여 수레와 쪽배는 함께 길을 가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수레는 쪽배를 도무지 따라갈수 없었습니다. 쪽배는 한참 가다가 수레가 뒤지는것을 보더니 등을 돌려댔습니다.

《어서 타라구, 길이 늦어지더라도 함께 가자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수레는 좋아라 쪽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쪽배에 몸을 싣고 푸른 물우를 가기란 얼마나 흥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호강을 하는데. 이게 친구를 잘 만난 덕이지.)

수레는 쪽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 영원히 헤여지지 않는 딱친구가 되자구.》

쪽배도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세. 어려운 땐 서로 도와가면서 지내자구.》

수레는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는데 푸른 물줄기는 여러 갈래의 작은 시내물줄기로 갈라져 논벌로 사라졌습니다.

쪽배는 길이 막혀 더 갈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솔미산은 아득히 멀었습니다.

수레는 하는수없이 쪽배를 업었습니다. 한참 가느라니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빠지는것처럼 아파났습니다.

수레는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땅우에선 꼼짝도 못하는 쪽배에게 딱친구가 되자고 괜한 약속을 하였구나.)

언덕 하나를 넘고 더 높은 언덕을 오르던 수레는 두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겁다구야. 자넨 어째서 쪽배로 태여났나. 혼자선 도무지 갈수도 없는 길을 왜 떠났나 말이야.》

가뜩이나 미안한걸 참고 가던 마음착한 쪽배는 그만 내려놓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수레는 못이기는척 하고 쪽배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쪽배는 노대로 땅을 짚으며 한치한치 힘겹게 갔습니다.

수레는 그 쪽배를 뒤에 떨구고 혼자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그만 넓은 강을 만났습니다. 수레는 도무지 그 강을 건늘수 없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친구를 내려놨구나.》

수레는 여울목을 찾아 강기슭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쪽배가 강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쪽배는 말없이 수레에게 끝을 돌려댔습니다.

《어서 타라구.》

수레는 선뜻 쪽배에 몸을 실을수가 없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는 수레에게 쪽배는 말했습니다.

《우리야 친구가 되자고 약속하지 않았나.》

쪽배에 오른 수레는 속으로 깊이깊이 뉘우쳤습니다.

(좋은 날에 한 약속 어렵다고 저버렸던 나야말로 의리심이 없는 놈이지.)

【자료】

작가 현진건과 그의 소설문학

리 광 일

해방전 일제가 그 어떤 사소한 반일적표현이나 민족적경향에 대하여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던 민족수난의 시기 진보적문학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온 작가들가운데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 현진건도 있다.

현진건(필명 빙허)은 1900년 8월 경상북도 대구에서 현경운의 넷째아들로 태여났다.

민족성이 강하고 애국심이 높았던 아버지와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옥사한 둘째형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남달리 강하였다.

나라잃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도 향학열

이 남달리 높았던 현진건은 1912년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를 다니였으며 졸업후에는 도꾜도이췰란드어전수학교에서 도이췰란드어를 배웠다.

중학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문학수업을 해온 그는 다시 중국 상해로 건너가 공부를 계속하였다.

3.1인민봉기후 조국으로 돌아온 현진건은 신문, 잡지 등 출판보도부문에 취직하여 활동하였다.

일찌기 일제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슴을 불태워오던 그는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 여러 문인들과 함께 주체25(1936)년 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단연 1위를 한 륙상선수 손기정의 경기성과와 사진을 보도하면서 그의 앞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하는 애국적장거를 단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손기정의 경기성과와 일장기말소사건

을 소개하는 강연을 듣고 모든 유격대원들이 《동아일보》 편집집단이 취한 애국애족적인 립장과 용단에 열렬한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였거나 파묻혀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우리 나라 문학사와 예술사발전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남달리 강하였던 현진건의 반일애국정신은 그가 창작한 20여편의 단편소설과 미완성장편을 포함한 4편의 장편소설들에도 뚜렷하게 반영되여있다.

그의 작품에 구현된 반일애국정신은 우선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일제 식민지통치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느끼게 된다.

작품에 반영된 당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던 일제에 대한 작가의 항거정신에 기초하고있다.

당시 일제의 삼엄한 보도관제가 실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왜놈들과 그 주구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폭로하는것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천대받고 짓밟히는 최하층주인공들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당대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것은 작가가 현실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 감정만을 가지고있은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명을 강요하는 일제에 대한 저주와 분노, 항거의 사상감정을 품고있었다는것을 쉽게 파악할수 있다.

작가는 창작초기 주로 자신의 생활체험을 위주로 한 단편소설들에서 식민지사회의 불우한 지식인들, 소시민들을 주인공으로 형상하여 현실을 비판하였다.

단편소설 《빈처》에서는 량심적인 지식인의 가난한 생활처지와 운명을 보여주면서 돈과 권세를 못 가진탓으로 겪게 되는 불행과 그로 인한 서글픈 심리적체험세계를 통하여 식민지사회 현실을 깊이있게 펼쳐보이였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는 《빈처》에 비하여 주제령역을 생활세태적범위에서 벗어나 일제식민지통치가 빚어낸 어지러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울분으로 확대시켰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살고있는 이 사회에서 누가 그에게 술을 권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화증도 하이칼라도 아니》라 바로 어지러운 사회가 권한다는 결론으로 타당성있게 이끌어감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사회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규탄을 표시하고있다.

작가는 창작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면서부터는 단편소설 《운수좋은 날》, 《서투른 도적》에서와 같이 생활난에 허덕이는 최하층인간들의 비참하고 눈물겨운 처지를 생동하게 보여

줌으로써 비판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안해마저 잃게 되는 《운수좋은 날》의 김첨지와 가난때문에 억울한 도적루명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할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당대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결국 작품들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례지는것은 오직 불행과 고통이라는것을 예리하게 발가내고 있다.

다음으로 작품에 구현된 반일애국정신은 왜놈들의 형상을 통하여 놈들의 죄악을 폭로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신문지와 철창》에서는 서장집 대문가에 버려진 신문지 한장때문에 74살의 로인에게 가하는 일제경찰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통하여 인륜도덕도 없는 일제침략자들의 야수적 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로인을 살인강도의 루명을 씌워 류치장으로 끌어가 마구 다루고 몸까지 꺼리낌없이 뒤지는 왜놈순사들의 형상은 우리 조선사람들을 노예나 짐승처럼 취급하고 대하는 일제침략자들의 후안무치한 만행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하여준다.

세계유모아

상관의 비위를 맞추려고

문화국장이 론쟁거리로 되고있는 어느 한 작가의 새로운 소설을 한번 읽어보라고 서기에게 주었다.

며칠후 서기가 소설을 국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읽어보았는데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러자 국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말은 일정한 의미에서 괜찮다는것입니다.》

서기가 인차 말하였다.

국장이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일정한 의미>라고 한것은 문학을 잘 모르

작가의 반일애국정신은 다음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애국자의 형상을 창조한데서 느낄수 있다.

장편소설 《적도》에서 작가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의 한 사람인 김상렬을 등장시키고 그의 영향하에 타

는 사람들을 념두에 둔것입니다.》

서기가 인차 말을 돌렸다.

국장이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문학감상능력이 없는 사람들보기에 괜찮을수 있다는것입니다. 방금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총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시원치 않은 소설입니다.》

국장은 고개를 더 세차게 저었다.

《물론 소설을 완전히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문화국장은 또 한번 고개를 가로젓더니 신경질적으로 말하였다.

《이 와이샤쯔깃이 그냥 목을 간지럽히거던.》

락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주인공 여해와 명화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갱생의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형상하였다.

물론 상렬은 애국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원만히 갖춘 인물로는 형상되지 못하였으나 타락한 여러 인물들을 갱생의 길에 돌려세워주는 긍정적인물로 형상하고있는데서 작가의 사상적 지향성, 반일애국정신을 력력히 감수하게 된다.

현진건의 소설의 형상적특성은 간결하고 독특한 구성과 인간의 내면심리를 생동하게 드러내보이는 묘사, 표현성이 높은 언어구사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생활세태적인 소재로 계기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사회적문제로 점차 확대시켜나가다가 사건의 마무리에 형상의 력점을 찍어나가는 특성이 보편적이다.

단편소설 《운수좋은 날》에서와 같이 여느 때와는 달리 일감이 걸리여 돈을 벌어 《운수가 좋다.》고 생각한 날에 인력거군인 주인공이

안해를 잃는 형상을 대치시켜놓고 가난하고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운수좋은 날이 있을 수 없다는것을 뚜렷하게 밝히고있다.

그러나 작가는 장편소설 《적도》를 비롯한 일부 작품에서와 같이 자연주의적경향이 농후하며 인물의 성격이 전형화되지 못하고 그들의 운명처리에서 신중한 약점을 발로시키는 결함도 적지 않게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작가의 세계관적미숙성과 창작방법상 제한성으로부터 산생되는 필연적인 형상으로 볼수 있다.

이처럼 작가 현진건은 반일애국정신이 강한 진보적인 작가로서 해방전 진보적문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자료】

소설제목을 《등에》라고 단 유래

B.C. 399년 고대그리스의 철학가 쏘크라테스는 철학으로 청년들을 부패시킨다는 죄명으로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

사형을 앞두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만약 철학연구를 그만두면 석방시켜주겠다는 조건을 내놓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철학연구를 끝까지 하겠다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의의있는 행동을 할 때는 생명의 위험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이 도시에 파견할 때는 소잔등의 등에와 같이 부단히 자극을 주어 소가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하는것

처럼 이 도시도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쏘크라테스의 이 말은 영국의 녀류작가 보이니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그는 자기 신앙에 충실하고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는 쏘크라테스의 정신에 감동되였다. 그는 이딸리아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반영한 소설을 쓸 때 자기 소설의 주인공이름을 《등에》라고 하였으며 소설이름도 《등에》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이였다.

지금도 이 소설의 주인공 《등에》의 형상은 세계문학사에서 신념있는 인간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있다.

【작가일화】

무딜수 없는 정의의 필봉

어느해인가 권필(1569—1612, 조선봉건왕조시기 시인)은 임무숙이 과거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권필은 그 리유가 무엇인지 대뜸 짐작이 갔다. 임무숙으로 말하면 이미 시짓기와 문장짓기에 이름이 있어 조정에까지 알려진 사람이였다.

그러나 항상 대바른 소리를 하는것으로 하여 그를 싫어하는 축들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임무숙이 별시에 응시하여 광해군과 그의 처가족속들의 전횡을 징계하는 글을 써낸적이 있었다.

이 일로 하여 그는 과거시험에서 떨어졌다. 결국 임무숙을 싫어한 왕과 조정관료들의 작간인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고 하

여 어디에 가서 하소할데도 없었다. 당시 왕의 폭정과 그를 등대고 세도를 부리는 통치배들의 전횡이 극도에 달한 때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기가 일쑤였다. 특히 이미 권필과 원쑤진 류희분일족의 세도는 검은것도 희게 하고 흰것도 검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그 파렴치성이 극도에 이르렀다.

(어떻게 할것인가. 류희분의 세도는 하늘에 닿았고 조정에서는 매일처럼 이러루한 비행이 계속되고있다. 서뿔리 나서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정의의 글이 박해받는 참을수 없는 사태를 외면하고있을수야 없지 않는가. …)

잠시 생각을 더듬던 권필은 곧 책상우에 종이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다.

(내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정의의 필봉을 무디게 할수 없다. 한목숨이 아까워 진실을 외면하고 구구히 살아간다면 그 어이 옳바른 삶이라 하겠는가.)

결심을 가다듬은 권필은 곧 시 한수를 써내려갔다. 이것이 바로 후날 그에게 죽음까지도 가져다준 유명한 시 《궁중의 버들》이였다.

궁중에 버들이 류달리 푸르기에
꾀꼬리 얄밉게 란장을 치누나
향락만 탐내는 부자집자식들
그런걸 봄경치라 아첨을 하네

조정에선 《태평세계》 되였다고
신하들이 치하하기 바빠하건만
나라를 걱정하는 진실한 목소리
선비의 입에서 터질줄 알았으리

【작가일화】

그 형에 그 동생

기묘사화때 밀려난 김안국은 리천에 내려가 있으면서 후대육성에 힘썼다. 이때 고향에 있는 동생 정국이 오래간만에 형을 만나러 리천에 찾아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이 큰 벼슬을 하던 관원이 자기 마을에 와서 아이들 글공부까지 시켜주는것이 고마워 저마끔 손에 보자기며 다래끼를 들고 김안국의 집에 왔다. 마침 여름이였다.

《귀한 동생분이 모처럼 오셔서 반갑겠소이다. 저희들 마음도 기쁘기 한량없소이다만 가난하다나니 성의가 이것뿐이옵니다. 한끼 비지나 해서 대접해주시오.》

《우린 남새밭에 달린 참외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누구는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왔고 누구는 산에 가서 나물을 뜯어왔다.

그 광경을 본 동생 정국은 《형님, 마을사람들의 인심을 얻으셨군요. 부럽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김안국은 동생의 말이였지만 제 자랑을 할줄 몰랐다.

《내가 인심을 얻은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인심이 후해서이네.》

그러면서 김안국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가 어른이든 아이이든 차별하지 않고 친절히 맞이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을뿐아니라 그가 들고 온 물건을 크든작든 다 기록장에 꼭꼭 적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동생이 조용한 때에 의아한 낯빛으로 물었다.

《그런데 형님, 뭘 그런것까지 다 적어두시오?》

《대사가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을 적어두는 거야 우리 조선사람의 례절이 아니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오늘이야 대사날도 아닌

데 무엇에 쓰자고 적으십니까?》

김안국은 의미깊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다.

《사람들이 오늘같은 크지 않은 일에도 찾아오는 그 성의야 대사때 찾아오는것보다 더하다고 할수 있네. 그러니 비록 풋콩 한단이나 참외 몇개라도 그것을 많지 않은것이라고 볼게 아니라 크게 여겨야 할게 아닌가. 내가 그것을 적어두지 않으면 후에 혹시 잊어버리게 될수 있지 않겠나. 사람의 고마운 뜻을 잊어버리는게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행실인가. 그래서 나는 적는거라네.》

정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탄복하였다.

(나는 형님에게서 따라배울것이 많아.)

형제간에 즐겁게 보낸 며칠이 꿈같이 흘러갔다. 이제는 김안국이 동생을 떠나보내야 할 시각이 다달았다. 리별이 아쉬워 형 김안국이 동생 김정국의 손을 부여잡고 말하였다.

《나도 이미 늙고 동생 또한 병이 많아 세

상살이도 이제 얼마 남은것 같지 않네… 여생도 이제 얼마 없는듯 하니 만나면 기쁘고 리별하면 이렇게 서러울것 없이 함께 모여사는것이 어떻겠느냐?》

형의 말에 동생은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제 뜻은 형님과 다르오이다. 형제가 모여사는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오나 만약 그렇게

상 식

필적과 성격

◎ 륜곽이 뚜렷한 필적—진취성과 비판정신이 강하거나 지도능력이 있다는것.

◎ 힘있는 필적—의지가 굳세고 용맹하다는것.

◎ 미끈하고 고운 필적—성미가 온순하다는것.

◎ 대범하고 믿음성있는 필적—비교적 풍부한 경험을 갖고있다는것.

◎ 시원하고 간결한 필적—재능과 지혜가 있고 일처리속도가 빠르다는것.

하면 두집의 종들이 혹시 리간이 있을수도 있고 또 녀인들이라도 간혹 성질이 편협하여 서로 의심하기 쉬우니 화기를 잃을수 있소이다. 이리하여 만약 오해와 반목이 있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것이니 지금처럼 각기 헤여져 사는것보다 못하게 될수도 있소이다.

그리고 오래 갈라져있으면 그리운 정이 생기게 되고 또 서로 만나면 즐거우니 이것이 오래

◎ 룡두사미격으로 어울리지 않는 필적—참을성과 인내성이 부족한것.

◎ 어울려 한덩어리가 되는 필적—사유는 정확하지만 창조적정신이 부족하다는것.

◎ 련달아 이어진 필적—사유가 신중하고 세심하다는것.

◎ 아래로 약간 내려가는 필적—용기가 부족하거나 압박감이 있다는것.

◎ 나중에 쓰는 획이 안으로 뻗은 필적—자기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쌓는다는것.

계속되면 형제간의 우애도 항상 변치 않을것이고 날로 더욱 두터워질것이므로 지금처럼 갈라져 사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오이다.

우리가 비록 서로 떨어져서 산다 하여도 형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형님을 공경하는 마음만 극진하면 천리도 지척이 아니겠습니까.》

《거참 명담일세. 하하하…》

김안국은 즐겁게 웃으며 떠나가는 동생을 바래웠다. 이후 이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형제간의 우애를 더욱 지극히 하였다 한다.

철마의 꿈

편 집 리 서 영
장 정 리 성 일
교 정 리 명 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8(2019)년 1월 22일
발 행 주체108(2019)년 1월 24일

ㄱ-1421ㄷ